2026 11
VOL.257

예술부산

ART BUSAN MONTHLY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여자대학교
BUSAN WOMEN'S UNIVERSITY

2026 ANCHOR
국제무용교류 페스티벌

사제동행 프로젝트 IX '춤 - 舞緣'

2026 ANCHOR International
Dance Exchange Festival



2026년 12월 16일(수) PM 0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여자대학교 ANCHOR사업단

주관 | 부산여자대학교 ANCHOR사업단,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BWC댄스컴퍼니, 김해성무용단

후원 |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체조협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산사무소

협찬 | 서창제일의원 유진탑 (주)유진탑 부산한물림 국악기 (사)대한청소년스포츠아카데미 대한웰니스협회
신주례태권도 BB필라테스 G4U Golf4Us | 골퍼러스 그림나라어린이집 성봉영재학원

입장료 : 전석 초대

문의 |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051-850-3261

bwcdance@naver.com

2026 부산예술회관 기획 문화가 있는 날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예감



2026년 2월-12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시장

공연 19:00 / 전시 10:00 open

2.4.(수) 음악하는 사람들 Music in **〈와그작!! 달빛 아래 동물의 사육제〉**
2.6.(금) 운사당: 정자경 가야금병창 아지트 **〈소리, 바다를 건너다〉**
2.11.(수) 해낙낙 **〈도니제티 오페라-사랑의 묘약〉**
3.9.(월) ~ 3.15.(일) 허종자 **〈지은 허종자 개인전〉**
3.23.(월) ~ 3.29.(일) 홍찬효 **〈홍찬효의 시간여행전〉**
4.20.(월) ~ 4.26.(일) 파티나 컨트리 **〈who loves old thing〉**
6.8.(월) ~ 6.14.(일) 나연회 **〈제27회 나연전〉**
6.22.(월) ~ 6.28.(일) 김덕용 **〈글뫼 김덕용 서예전〉**
7.13.(월) ~ 7.19.(일) 부산미술서예작가회 **〈부산 미술 서예작가회전〉**
7.27.(월) ~ 8.2.(일) 부산문인협회 시분과 **〈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
8.17.(월) ~ 8.23.(일) 부산예술건축문화회 **〈공간의 여정〉**
8.24.(월) ~ 8.30.(일)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숨겨진 열글, 물빛으로 피어나다〉**
9.7(월) ~ 9.13.(일) 이동욱 **〈이동욱 개인전-시선이 머문 자리〉**
11.4.(수)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사계〉**
11.11.(수) 부산시민윈드오케스트라 **〈부산, 바람의 시작〉**
11.18.(수) 부산아이디발레단 **〈렉처 퍼포먼스 발레리노가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발레〉**
11.25.(수) 더부산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더부산필하모니아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클래식〉**
12.2.(수) 이바디예술단 **〈술가락 젓가락 들고 떠나는 메구놀이(풍물) 맛 기행〉**
12.9.(수) 춤과사람 **〈추풍연(秋風宴)〉**
12.16.(수) 원기동 국악예술단 **〈사노라면-화류춘몽〉**

주최 |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PAFCON

문의 | 051)631-1377 **www.bsart.or.kr**

예술부산

ART BUSAN MONTHLY
VOL.257
2026 NOVEMBER 11

CONTENTS

권두칼럼

06 예술문화로 이어 온 중한 우정, 함께 열어 갈 미래 _ 진일표

예서제서

08 제64회 부산예술제 개막식
12 제64회 부산예술제 – 국제교류공연
16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재개관
18 제64회 부산예술제
– 부산미술협회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
20 제38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
22 김응기·성현섭 2인 초대전
23 오수연 개인전
24 복천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 '함께 달린 시간: 우리 곁의 말 이야기'

열린마당

26 '편집조각' 현실의 조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을 만들다 _ 김대영
28 한 줄에 담기지 않는 청년들의 '요즘' _ 이어진



2026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수상작

최승만_계조(장소 영도 복천사)









포토에세이

32 교토, 가을의 시간 _ 김지민

수필의 뜰

36 에스텔라 _ 김창균

인물포커스

40 부산문화재단 송성준 대표이사 _ 정혜주

예인탐방

42 사진작가 신현숙 _ 유다정

예술가열전 250

44 시조시인 서관호 _ 김정

손으로 쓴 문학

48 말 _ 정영일

들여다보기

50 건축/ 과연 당신들은 어디에 살고 싶은가? _ 차윤석

52 영화/ 부산, 서로 다른 영화의 자리 _ 김민경

54 영화/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곁에 두기 _ 김민우

56 국악/ 제12회 부산국악축제 〈창해성연〉을 마치고 _ 박정곤

기획연재

60 茶 –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 _ 박태만

64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15화 「한 많은 내 청춘」과 '누나의 길' _ 이용득

68 예술책 – 정신이 된 손, 제도가 된 정신 _ 박은주

74 예총·전시·공연 뉴스

80 신간 안내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6년 11월 통권 257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6년 10월 27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송민승(영화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혜주 편집기자_ 이선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교정·교열_ 배혜경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술문화로 이어 온 중한 우정, 함께 열어 갈 미래

글 _ 진일표 주부산 중국총영사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오랜 세월 예술과 문화를 통해 깊은 인연을 맺어 온 동반자입니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앞으로의 협력 역시 큰 잠재력과 밝은 전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과 문화를 통한 교류는 이념과 사회제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중국과 한국은 유교문화권이자 한자문화권에 속하며, 유교·불교·도교를 비롯해 한자와 율령 등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공유해 왔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양국의 발전에 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예술과 문화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문자를 매개로 형성된 공통의 문화적 기반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함께 논하고, 두보와 이백의 시를 나누며, 『삼국지』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문화교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폭넓은 내용과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동아시아 문화의 풍요로움을 함께 일구어 온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문학가 최치원은 이러한 문화교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인물입니다. '동국유종東國儒宗'으로 추앙받았던 그는 약 1,100년 전 당나라에 유학하며 학문과 문화를 익혔고, 귀국 후 유학 사상과 중국의 문물·제도를 신라에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중한 문화교류사의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는 최치원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중국 양저우에도 그를 기리는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인물의 삶과 학문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양국의 인문적 유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양국은 서로의 성취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각자의 미감과 창의성으로 발전시키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고려시대의 청자는 중국

송나라의 도자문화와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했지만, 고려만의 독창적인 조형미와 예술성을 구현하며 중국 대륙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문화교류가 일방적인 수용이 아니라 상호 학습과 창조적 발전의 과정임을 보여 줍니다. 시와 서예, 회화와 도자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이어진 교류와 영향은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적 유산인 동시에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열어 가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류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축제인 부산예술제에서는 중국 상하이시 예술단과 부산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국제교류 공연이 열렸습니다. 중국 상하이시희극대학 무용단과 청년 음악가들이 직접 참여해 양국의 독창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한 음악과 무용을 선보이고, 부산 예술인들과 예술적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출발한 예술가들이 무대를 통해 소통하고 상대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예술은 언어와 국경의 제약을 넘어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고 서로의 차이를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부산의 교류는 이러한 예술문화 협력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양 도시는 1993년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이래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 온 신뢰와 협력은 양 도시의 예술인들에게 서로의 작품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이와 부산의 교류가 더욱 다채로운 방식으로 확장되어 양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끄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래를 향한 문화교류에서 청년 세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양국 정상은 청년 교류 확대와 소통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청년 창작자들이 선보이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아트토이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는 세계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각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작 영역을 넓혀 가는 청년 예술인들은 국경을 넘어 서로의 작품을 발견하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색하며 공동의 창작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을 향한 탐구심과 열정을 지닌 청년 예술인들의 진정성 있는 교류는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적 간극을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배우고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성된 우정은 일회성 행사나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예술문화를 매개로 서로의 생각과 감성을 나누고 공동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이들의 교류는 중한 관계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뒷받침하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2027년 중한 수교 35주년을 맞아 양국이 수교의 초심을 되새기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호혜와 공동 이익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양국은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문화는 서로 다른 사회와 사람을 연결하고 과거의 유산을 미래의 창조로 이어 주는 힘입니다. 오랜 세월 예술과 문화를 통해 인연을 이어 온 중한 양국이 그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상하이와 부산 그리고 양국의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교류의 장이 중한 우정의 깊이를 더하고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적 토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과 나누고,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을 위한 예술축제

제64회 부산예술제

2026. 10. 14.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제64회 부산예술제가 10월 14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개막했다. 1963년 부산의 직할시 승격을 기념하며 시작된 부산예술제는 올해로 64회째를 맞았다. 부산을 위한 행사로 출발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부산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 왔다. 매년 10월이면 1천여 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전통의 소리와 음악의 선율, 춤의 신명을 나누며 예술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다. 시민과 함께 예술을 만들고, 예술의 가치를 나누며, 시민을 위한 축제를 지향하는 부산예술제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올해 개막식은 공연장 안팎에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는 본격적인 개막공연에 앞서 흥겨운 라인댄스 무대가 펼쳐졌다. 부산라인댄스협회 회원 100여 명이 리듬에 맞춰 시민들과 발걸음을 맞추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첫 무대는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국제하모니카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무대가 펼쳐졌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하모니카 연주자들이 부산예술제를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다. 부산예술회관합창단은 전문 성악가와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모아 하나의 화음으로 음악이 지닌 화합의 힘을 전했다.

상하이 자득금사는 '고풍조古风操'를 선보이며 색다른 매력을 전했다. '자득금사'는 인간이 순수하고 천진한 상태에서 음악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중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 예







술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현악기인 고금古琴을 비롯해 고쟁, 비파, 퉁소,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활용해 전통음악의 다채로운 색채를 펼쳐 보였다. 중국 전통 복식인 한푸漢服를 차려입은 연주자들과 동양화 및 고대 벽화에서 영감을 얻은 무대 연출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퉁소의 독창적인 연주 기법과 북을 중심으로 공간을 울리는 역동적인 리듬이 어우러져 중국 전통음악 특유의 깊이와 흥취를 전했다.

헤이데이크루는 마이클 잭슨의 춤을 재해석한 역동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정교한 군무와 강렬한 에너지는 대중음악과 춤이 지닌 매력을 전하며 무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어 한국 전통의 흥과 멋을 담은 경기민요 무대에서는 「태평가」, 「뱃노래」, 「잦은뱃노래」 등이 울려 퍼졌다. 차분하면서도 신명 나는 가락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마음과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1 부산시립무용단_〈바라는 바다〉 중 바다 무舞굿 2 상하이 자득금사_고풍조古风操
3 소프라노 강수진 4 테너 전병호 5 한국국제하모니카오케스트라(지휘 박기국)



6

상하이희극대학교 무용대학의 청년 예술인들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춤으로 무대의 분위기를 한층 깊게 만들었다. 짙은 암갈색과 청색의 의상은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에 유려한 선을 그려 냈으며, 절제된 동작과 섬세한 표현은 무대 전체에 그윽한 분위기를 더했다. 중국 전통무용 특유의 선과 호흡, 표정 연기가 어우러진 공연은 중국 무용예술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 주었다.

가을은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하고 매일 보고 손을 잡고 그런 꿈 같은 날들의 연속이다. 소프라노 강수진과 테너 전병호가 부른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아름다운 선율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10월의 낭만을 전했다.



7



8

개막식의 대미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창작 무용 작품 〈바라는 바다〉 중 '바다 무굿'(연출·안무 이정윤)이 장식했다. 〈바라는 바다〉는 해양도시 부산의 역사와 삶, 바다가 품은 정서를 현대 한국무용의 언어로 풀어낸 대형 창작 작품이다. 전통 제의인 굿의 치유와 상생의 정신을 한국무용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결합해 거친 풍랑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부산의 기운과 희망, 태평성대를 기원한다. 끊임없이 넘실대는 듯한 움직임 위로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군무가 더해지며 부산의 바다를 무대 위로 옮겨 놓은 듯했다. 전통의 정신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공연은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예술로 되새기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9

6 상하이희극대학교 무용대학_오봉권영乌篷拳影
7, 8 헤이데이크루_Michael Jackson
9 부산시립무용단_〈바라는 바다〉 중 바다 무舞굿



10

제64회 부산예술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넓히고,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예술로 소통하는 축제의 의미를 되새겼다.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에서 함께 춤추고 호흡하는 참여자로, 예술을 감상하는 시민에서 축제를 완성하는 주체로. 부산예술제는 시민과 함께할 때 더욱 풍성해진다. 예술인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나눈 음악과 춤, 그 속에서 피어난 공감과 화합은 부산예술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주었다. 시민과 나누고,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을 위한 예술축제. 제64회 부산예술제는 그 약속을 무대 안팎에서 실현하며 부산의 가을을 예술의 온기로 채웠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강무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해 KBS부산방송총국 민필규 총국장, 부산동구청 강철호 구청장,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홍찬 위원장, 상하이시문학예술계연합회 후효군 대표, 부산예술후원회 김정기 회장,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조정희 대표, ㈜포엠 정광현 대표, 우리마루 박정은 대표변호사, 부산예술후원회 박근서 감사, 조한제 정책위원장, 부산문화재단 송성준 대표, 민예총 곽영화 이사장 등 지역 예술문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산예술제는 부산 예술의 역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예술인과 시민을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11


12


13

10 전재수 부산시장과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이 함께 제64회 개막식 선언을 하고 있다.
11 전재수 부산시장 12 강무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3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예술로 잇는 부산과 상하이, 문화교류의 새 물결

제64회 부산예술제 국제교류공연

2026. 10. 15.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깊어가는 가을 저녁, 새로운 예술적 만남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기대가 객석을 채운 가운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가 주최한 국제교류공연이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상하이시문학예술계연합회(대표 후효군)와 교류하고 진일표 주부산 중국총영사를 비롯해 부산지역 중국인 유학생, 재한 중국동포 관객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상하이 자득금사팀은 「고풍조古风调」를 통해 중국 전통음악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였다. 전통적인 음악 요소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고유한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은 중국 음악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상 경험을 전했다. 상하이희극대학교 무용대학은 「다이족의 딸, 다이족의 비」, 「바람모래와 푸른 풀」, 「구름을 바라보며」, 「오봉권영乌篷拳影」 등 네 작품을 선보였다. 작품마다 서로 다른 주제와 움직임을 통해 중국 무용의 다채로운 표현 방식을 펼쳐냈다. 무용수들의 몸짓과 무대 구성이 어우러지며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2


3

1 자득금사_고풍조
2 상하이희극대학교 무용대학_다이족의 딸, 다이족의 비
3 상하이희극대학교 무용대학_오봉권영
4 상하이희극대학교 무용대학_구름을 바라보며
5 상하이희극대학교 무용대학_다이족의 딸, 다이족의 비
6 상하이희극대학교 무용대학_바람모래와 푸른 풀


4


5


6


7


8


9

부산예술회관합창단은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움직임과 화음으로 「Season of LOVE」와 「마중」을 선보였다. 가야금병창은 「사철가」, 「내 고향의 봄」, 「복사꽃」, 「꽃타령」을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과 판소리 특유의 깊은 소리가 어우러지며 우리 음악 고유의 흥과 정서를 들려주었다. 베이스 박상진은 「Moon River」와 「백학」의 익숙한 선율을 깊이 있는 저음과 섬세한 표현으로 풀어내 관객들에게 음악을 통한 공감의 순간을 선사했다. 헤이데이크루는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한 퍼포먼스로 20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군무와 개성 있는 솔로 춤사위가 어우러지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과 중국의 전통예술부터 현대적인 퍼포먼스까지, 서로 다른 장르와 문화가 어우러진 이날 무대는 예술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힘을 보여주었다. 부산과 상하이가 음악과 춤으로 서로의 문화를 나눈 이번 국제교류공연은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예술적 감동과 함께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선사했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7 베이스 박상진 8 헤이데이크루 9 가야금병창
10 부산예술회관합창단 11 가야금병창


10


11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상하이시문학예술계연합회 교류협력 간담회

2026. 10. 15.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 이하 부산예총)는 10월 15일 한올집에서 상하이시문학예술계연합회와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수연(부산예총 회장), 김인숙(부산예총 수석부회장), 권성은(부산음악협회 회장), 강명옥(부산국악협회 회장), 남선주(부산무용협회 회장), 박혜숙(부산문인협회 회장), 이정남(부산연극협회 회장) 총 7명이 참석했다. 더불어 상하이시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후효군胡晓军(대표), 챠오쟈이乔嘉(상하이시음악가협회 부주석), 강학진姜学贞(상하이시잡기예술가협회 부주석), 강하오姜皓(상하이시문학예술총연합회 예술창작추진센터 부주임), 당빈唐彬(자득금사 감독), 장숙금张素琴(무용대학 부학장) 총 6명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양국의 전통예술과 문화에 관한 질의응답을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며 향후 원활한 교류를 위한 추진 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상하이시문학예술계연합회, 부산문화회관 방문

2026. 10. 15. 부산문화회관

상하이시문학예술계연합회(대표 후효군)는 10월 15일 부산문화회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김윤규)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윤규 대표이사는 "자주 오가는 것에서부터 교류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양측은 전통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창작 활동, 예술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문화예술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재개관

2026. 10. 15.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이 약 7개월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부산예총은 10월 15일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일표 주부산 중국총영사, 상하이시문학예술계연합회 후효군 대표 및 관계자들과 부산예술후원회 김정기 회장,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연장의 새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부산예술회관은 2011년 3월 3일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752㎡ 규모로 개관했다. 개관 당시 약 240석 규모의 소극장을 비롯해 다목적홀, 전시장, 연습실 등을 갖췄으며, 소극장과 전시장 등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왔다. 이후 공연장은 각종 공연과 강연, 지역 행사를 개최하며 부산의 예술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시비 보조금 약 15억 원 원을 투입해 공연장을 중심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공간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연장 일부 공간을 개방해 면적을 넓히고 무대 확장과 객석 수를 296석으로 늘렸으며, 관객석 높이 조정과 조명, 무대막 등 노후 시설을 교체했다. 또한 원활한 공연 준비를 위한 조종실 위치 변경과 쾌적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정비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공연 대기실을 리모델링하고 수유실 등 관람객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은 "부산예술회관은 지난 15년간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이번 새단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갖춘 만큼, 앞으로도 누구나 편하게 찾고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


부산예술후원회 김정기 회장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진일표 총영사


상하이시문학예술계연합회 후효군 대표

부산예술회관 무대감독에게 듣는 새 공연장의 변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이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강당 중심의 공간 구성에서 벗어나 객석 구조와 무대 시설, 조명 환경, 공연 조정실 및 부대시설 전반에 걸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관객에게는 보다 나은 관람 환경을, 공연 관계자에게는 더욱 효율적인 공연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객석 구조의 개선이다. 기존 공연장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배치된 노후화된 영화관 형태의 의자와 비교적 낮은 객석 경사도로 인해 강당에 가까운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리모델링 이후에는 중앙 집중형 좌석 배치와 계단식 객석 구조를 도입해 공연장으로서의 공간적 특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객석의 시야 확보와 공간 활용 측면에서 개선을 이루었으며, 관객들이 공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과거 2층에 위치해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폐쇄적인 구조의 조정실은 전면 유리창 없이 개방된 형태로 개선됐다. 공연장 내부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공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음향 및 조명 등을 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장 내부의 조명 환경은 천장 공간에 매입형 간접조명을 적용하고, 객석 벽면에는 LED 라인조명을 설치해 공간의 입체감과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였다. 공연이 없는 시간에도 공연장 내부에 현대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공연이 진행될 때는 객석과 천장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공간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무대 공간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무대 전면의 돌출무대 공간을 약 1m 확장해 공연의 특성에 따라 무대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자주색 수동 무대막을 검정색 전동 무대막으로 교체하고 전체 무대막을 전동식으로 개선한 점은 무대 운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기존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대 전환이 가능해져 공연 진행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연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무대 뒤편의 분장실 또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거쳤으며, 아울러 기존에 협소했던 장비 반입구 공간을 확장해 무대 장비와 공연 관련 물품의 반입 및 이동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공연 준비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무대 설치와 철수 등 현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은 관객이 예술을 만나는 공간인 동시에 무대 위의 예술적 표현과 무대 뒤의 전문적인 운영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번 변화를 현장에서 지켜본 공연장 감독으로서, 새롭게 정비된 시설들이 관객에게는 공연을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공연 관계자에게는 보다 나은 제작 및 운영 여건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이 지역 예술문화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호흡하는 공연 공간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글_황종문 무대감독



1

| 제64회 부산예술제 |

부산미술협회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
&부산미술대작전

아시아 현대미술을 향유하다

2026. 10. 19. ~ 24. 부산광역시청 1·2·3 전시실

부산미술협회(회장 최장락)가 해외자매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고 동시대 아시아 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조망하는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을 개최했다. '아시아 현대미술을 향유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부산 지역 작가 35명과 중국·일본 등 2개국 해외자매도시 작가 20여 명이 참여해 각 지역의 예술적 감각과 문화적 특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는 부산 지역 작가들의 대형 작품을 비롯해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서예, 문인화, 수채화, 민화, 불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동시대 미술의 폭넓은 표현과 개성적인 예술세계를 보여줬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창작 방식을 지닌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면모와 실험적 창작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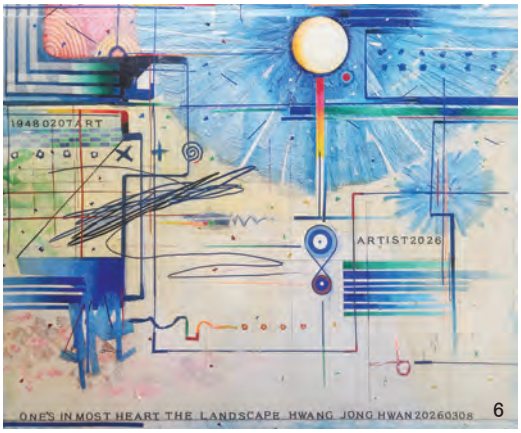
아시아 현대미술은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전위성, 역동성, 실험성을 더하며 표현 영역을 확장해 왔다. 최근 현대미술의 관심이 서양에서 아시아로 확대됨에 따라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1 박주현_아빠의 하루, 나무, 돌, 15×15×40cm, 2026
2 나카무라 토모아키_Evol in lovE, 캔버스, 디지털 이미지, 68×50cm, 2024
3 정상지_신묘한 나의 친구 도깨비 II, 재료, 170×90cm, 2026
4 장정희_용비어천가 제2장, 화선지, 먹, 136×130cm, 2026
6 박대련_념(念), Mixed media on canvas, 100호
6 황종환_READY-MADE-64, 아크릴 물감, 바뉘시, 100호, 2026
7 김창희_VASEVII, Ceramic, 31×31×37cm, 2022

미술의 다양한 양상과 지역적 특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전시는 해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작가 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 부산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창작 환경과 다양한 예술적 시각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교류는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공유하는 기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_051)632-2400 / 편집실
사진 제공_(사)부산미술협회


1


2


3


4


8


9


10


11

제38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

2026. 10. 13. ~ 16.

부산예술회관 3·4층 전시실


12


13


14


15


16


5


6


7

1 양기성_스페이스워크, 금상 2 김영삼_부채춤, 은상 3 유삼형_동심, 은상 4 백종기_해녀의 삶, 동상 5 윤경숙_질주, 동상 6 최태홍_짚신, 동상
7 김명희_호기심, 가작 8 정선자_무제2, 가작 9 조길래_부부의 하루, 장려 10 최석진_카라반 사라이의 오후, 장려 11 박영선_아직끝나지 않은 기다림, 장려
12 공봉숙_웃음꽃, 가작 13 주인자_장인의 손길, 가작 14 한순자_도시의 질감, 가작 15 김동훈_어촌의 삶, 장려 16 심묘락_두시선, 장려

사진예술의 진흥과 창작 의욕 고취, 사진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부산사진협회(회장 강종관)에서 부산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부산전국사진공모전은 응모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의 사진인을 대상으로 작품을 모집하며, 올해는 전국에서 132명이 521점을 출품해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한 참여 속에 다양한 시선과 표현을 선보였다.

심사는 작품의 주체성과 창의적인 시각을 비롯해 구도와 화면 구성, 빛과 색의 조화, 순간 포착의 완성도, 작품이 전달하는 감동과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입상 16점(금상1, 은상2, 동상3, 가작5, 장려5)과 입선 88점 등 총 104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금상에는 양기성의 「스페이스워크」가 선정됐으며, 은상은 김영삼의 「부채춤」과 유삼형의 「동심」이 차지했다. 동상에는 백종기의 「해녀의 삶」, 윤경숙의 「질주」, 최태홍의 「짚신 작업」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대구·경북, 경남·울산, 광주·전남·전북, 충남·충북 등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해 전국 공모전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상과 자연, 인물과 사회적 풍경 등 다양한 소재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아름다운 장면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자의 의도와 감성을 이미지에 담아낸 작품들이 주목받았으며, 각기 다른 소재와 표현 방식 속에서도 사진으로서의 완성도와 작가의 개성을 보여준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하나의 장면을 바라보는 촬영자의 시선에 따라 같은 소재도 서로 다른 이미지와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부산전국사진공모전은 수상작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진가들이 한 장의 이미지에 담아낸 개성과 다양한 표현 방식을 시민들과 함께 감상하며 사진예술의 저변 확대와 폭넓은 가능성을 넓혀 나가는 자리이다.

이막래 심사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전국의 사진인 여러분께서 더욱 왕성한 창작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제38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이 우리 사진문화의 발전과 교류를 넓히는 뜻깊은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_051)631-4111 / 편집실
사진 제공_(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김응기·성현섭 2인 초대전

2026. 11. 11. ~ 30.
K갤러리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 온 김응기, 성현섭 작가의 근작 20여 점을 K갤러리에서 선보인다. 서로 다른 조형 언어를 구사하는 두 작가는 각자의 시선으로 자연과 생명, 기억과 감각의 세계를 탐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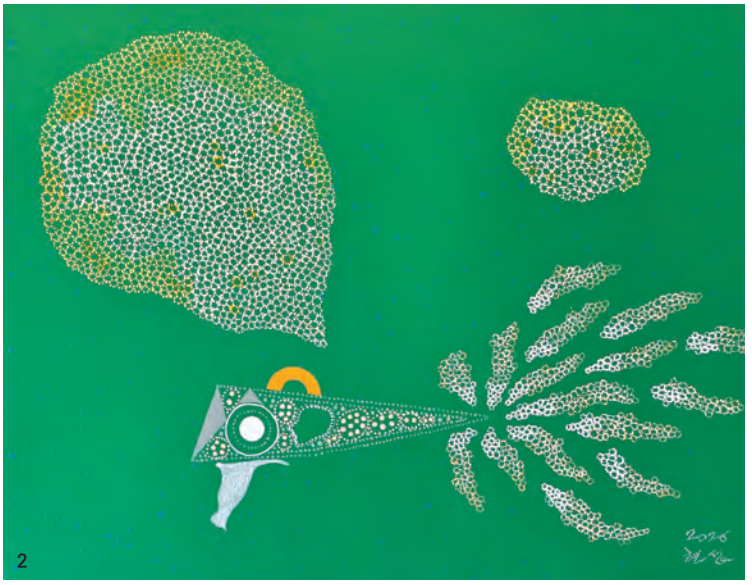
김응기는 추상적 형식에 머무르기보다 현실의 사물과 자연의 이미지를 재구성한다. 이는 작가의 사유와 과거의 기억층layer에 켜켜이 쌓인 심상들이다. 아틀리에 뜰에서 마주한 맨드라미와 작약, 동백, 양귀비 등의 이미지는 화면 안에서 조형적으로 재배치되며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작가는 하나의 작업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의식을 작품에 담아낸다. 꽃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아름다움과 덧없음, 생명과 계절, 감정의 층위를 연결하며 개념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섬세하게 조율한다.

성현섭은 무거운 현실의 무게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동물과 낯선 형태와 색채의 공간을 탐험한다. 점과 점을 이어 만든 궤적은 푸른 나무가 머금었던 바람을 동력 삼아 정적을 가로지르고, 아직 명명되지 않은 풍경 속으로 나아간다.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과 인공, 생명과 우주가 서로 교차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작가는 가장 단순한 조형 요소인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세상의 리듬과 흐름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익숙한 세계 너머의 풍경을 펼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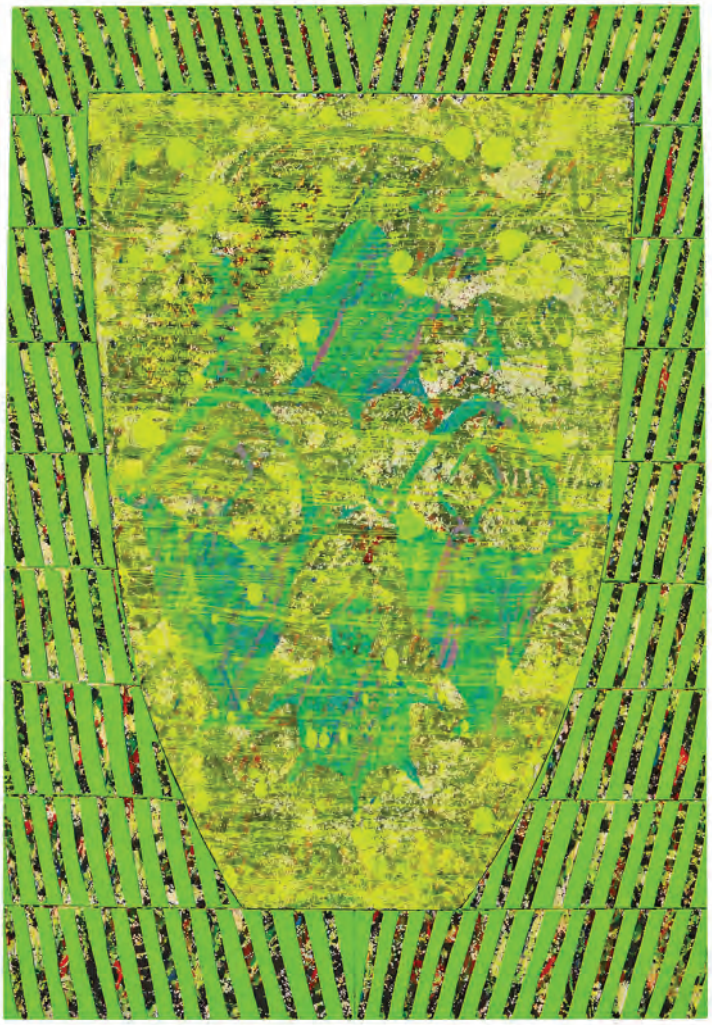
두 작가의 작품은 화려한 시각적 효과보다는 각자가 천착해 온 작품세계에 대한 몰입과 섬세한 조형적 밀도에서 특징을 드러낸다. 서로 다른 조형 언어는 때로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때로는 유연하게 어우러지며 각자의 맥락을 이어간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의 개별적인 시선과 조형적 탐구가 한 공간에서 어떻게 차이를 드러내고 호응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다.

문의_051)744-6669 / 편집실


1


2

1 김응기_메모, 29×39cm, 혼합재료, 2026
2 성현섭_나무523, 31.8×40.9cm, Acrylic on canvas



可園 오수연 개인전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2026. 11. 23. ~ 12. 6.

선사시대 암각화를 소재로 서법예술과 동양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 온 오수연 작가의 개인전이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오랜 시간 서예를 공부해 온 작가는 일필휘지의 필력을 바탕으로 암각화의 형상을 화면에 담아낸다. 작품의 완성 과정은 탁본 기법과 실크스크린 기법을 결합하고 화선지에 그린 다양한 동물 형상을 콜라주하기도 한다. 여러 기법이 중첩된 평면의 화면에는 인류가 바위에 새긴 오랜 시간의 흔적이 응축된다. 단단한 바위에 켜켜이 쌓인 세월의 지층은 화려한 색채와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통해 현대적인 조형 언어로 새롭게 펼쳐져 감상된다.

또 작품에는 복을 상징하는 둥근 형상을 비롯해 인류의 흥과 문명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다양한 이미지가 담겨 있다.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위로와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된 기원과 염원은 작가의 화면에서 되살아나 풍요와 생명력을 전한다. 선사시대 암각화에 깃든 흔적과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오수연 작가의 작업은 전통과 현대를 잇고, 서예와 동양화의 표현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함께 달린 시간

우리 곁의 말 이야기



2026. 9. 22. ~ 11. 22.
복천박물관

말馬은 오랜 시간 사람의 곁에서 삶의 풍경을 함께 만들어 온 존재다. 이동과 운송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국가의 운영과 외교, 일상의 노동과 의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복천박물관은 개관 30주년과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해 사람과 말이 함께해 온 긴 시간을 돌아보는 특별기획전 '함께 달린 시간: 우리 곁의 말 이야기'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사람과 말의 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복천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말갖춤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말을 이용해 온 역사와 말갖춤의 변천 과정을 조명한다. 나아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권력과 국가를 상징하고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존재로서 말의 의미를 살펴본다. 전시는 '말, 권력이 되다'와 '말, 세상을 잇다' 두 부분으로 구성했으며, 보물 2점을 포함해 전국 20개 기관에서 출품한 유물 162건 260점을 선보인다.

1부 '말, 권력이 되다'에서는 고대 한반도에 처음 등장한 말의 흔적과 다양한 말갖춤을 통해 말과 기마문화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과 지역 간 교류 양상을 살펴본다.

2부 '말, 세상을 잇다'에서는 말이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자 사람과 물자, 정보를 잇는 이동 수단으로 활용된 모습과 함께 과거 사람들의 일상과



1


2


3


4


5

1 월직사자_한국마사회 말박물관 2 통형기대_국립김해박물관 3 팔준도(유린청)_국립중앙박물관
4 목장지도(보물)_부산대학교도서관 5 도기 말머리장식 뿔잔(보물)_국립김해박물관

특별한 순간에 함께했던 말의 모습을 조명한다. 전시에서는 말의 어깨뼈로 만든 '점치는 뼈', 말이 장식된 칼자루 끝 장식인 '동파두', 말 토우가 부착된 복천동고분군 출토 '통형기대', 보물 '도기 말머리장식 뿔잔' 등을 선보인다. 이를 비롯해 이성계와 함께한 여덟 준마를 그린 '전 윤두서 필 팔준도'와 국가의 목장 운영을 보여주는 보물 '목장지도' 등 말이 역사 속에서 담당해 온 다양한 역할을 보여주는 유물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최근 학계에 보고된 '함안 말이산 75호분 출토 말 갖춤'을 처음으로 소개한다.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보조 콘텐츠도 마련했다. 역사 속 여러 장면에서 사람과 함께했던 말의 모습을 하나의 행렬로 구성한 '움직이는 행렬 모형'을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한 말의 역할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의 마지막에는 근대 이후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말의 역할이 변화해 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해, 오랜 시간 사람의 곁을 지켜온 말의 의미를 오늘의 시선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실 입구 로비에는 말을 주제로 한 라인아트 포토존도 마련해 관람객들이 말과 함께 자유롭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예 체험 '복천 하루 공방'에서는 '말 오너먼트 만들기'를 (9.18. / 10.30.), 초등학생 가족 대상 프로그램인 '복작복작 복천 공방'에서는 '함께 달리는 행운, 말편자 가방걸이'(11.8. / 11.15.)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추계가야유물교실', '고고학 시민강좌'(11.13. / 11.20.), 전시해설 프로그램 '갤러리 토크'(10.16. / 10.30.) 등이 운영돼 전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전시(☎051-550-0332), 교육(☎051-550-0333)으로 전화 혹은 홈페이지(https://museum.busan.go.kr/bokcheon/index)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_051)550-0333 / 편집실
사진 제공_복천박물관

AI 이미지가 유행하는 시대, 사진가는 모든 요소를 직접 촬영한다

AI 시대에 사진은 더 이상 존재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행위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AI의 등장은 오랫동안 현실의 증거로 여겨졌던 사진에 '그 장면이 실제로 존재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진의 기록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AI 생성 이미지가 넘쳐나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편집조각'은 실제로 존재하는 요소들을 재구성해 아직 일어난 적 없는 장면을 보여준다. 작가는 장면을 구성하는 모든 시각 요소를 직접 찾아내고 촬영한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노동을 통해 현실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글·사진 제공_김대영 DAEVINCI 사진예술가



2026. 11. 7. ~ 22. 갤러리 궁

사진은 현실을 기록한다. 그러나 사진에 기록된 현실이 반드시 본래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착한 현실의 조각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장면이자 새로운 기록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 태도를 '편집조각Edit Sculpture'이라 부른다. 편집조각은 사진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방법론이며, 그 안에 담긴 사고와 실천을 설명하는 언어다. 조각가가 재료를 다듬고 배치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듯, 작가는 직접 촬영한 사진 속 요소들을 분리하고 재구성하여 평면 위에 하나의 장면을 조각한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포착된 현실의 조각들은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완성된 작품은 작가가 탐구하는 생각과 개념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시각적 언어가 된다.

편집조각의 출발점은 언제나 실재다. 완성된 장면은 카메라 앞에 존재한 적 없지만, 그것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는 실제 세계에서 촬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현실의 기록들이 축적되고, 그 기록들은 다시 새로운 장면을 구성하는 아카이브가 된다.

작품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 직접적인 촬영과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전 과정에 투입되는 노동이다. 작품에 필요한 장소와 사물, 인물과 자연 속 생명체를 직접 찾아가 관찰하고 촬영하며, 현장에서 마주하는 빛과 그림자, 질감까지 기록한다. 원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촬영을 위한 조사와 준비, 현장에서의 시행착오, 수많은 이미지의 선택과 재구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는 시간과 노동이 축적된다.

'나는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가능성의 세계를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상상을
작품으로 실현한다.'

작품을 구성하는 빛과 원근, 요소 간의 크기와 공간적 관계, 그림자의 색과 방향 등을 픽셀 단위로 세밀하게 조정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각각의 요소가 하나의 공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축적된 현실의 기록들은 치밀한 재구성 과정을 거쳐,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가능성의 세계를 기록한 작품으로 조각된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한 세계를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반드시 현실의 전부는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사회의 규칙과 자유,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관계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조건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규칙과 상식도 시간과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작품은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때로는 낯설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서 조각하고자 하는 것은 비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실재의 증거들로 구축된 현실의 가능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장면일지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안에 담긴 질문은 분명 지금의 현실에서 비롯된다. 작업은 현실을 벗어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현실을 더 오래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문의_인스타그램@edit.sculpture

Work Process

01. 콘셉트 --〉 02. 스케치 --〉 03. 장소 리서치 --〉 04. 재방문 및 보완 --〉 05. 정밀 촬영 --〉 06. 편집 프로세싱 --〉 07. 최종 제작 및 작품 발표(편집 작업에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작품에 따라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


편집조각_Delivering


편집조각_Isnt It Real


편집조각_The Adventures

Delivering, Sculpted 2026
거리는 사라진다.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술은 사회를 더 빠르게 움직이고 편리하게 만들지만, 행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몸짓이다.

Isn't It Real?, Sculpted 2025
이곳에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다. 다만 질서가 바뀌었을 뿐이다.
인간의 규칙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을 때, 익숙한 거리는 낯선 질서가 작동하는 장소가 된다.

The Adventures, Sculpted 2025
세상을 움직이는 건 과연 무엇인가?
자연은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지구를 구성해 왔다. 그 안의 존재들은 인간을 위한 배경이 아니라, 각자의 질서와 구조를 가진 동등한 세계다.



부산에서 살아가는
청년에게 하나의 질문을
건넵니다.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따라가며
부산을 바라봅니다.

출처_unDraw

"요즘 뭐 해?"라는 물음에 뭐라고 답하고 있나요?

명절 식탁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는 모임에서 우리는 "요즘 뭐 해?"라는 질문을 자주 나눈다. 별다른 뜻 없이 건네는 안부 인사이지만, 이 질문에는 대체로 한 줄짜리 답이 돌아온다. "회사 다녀.", "취업 준비 중이야.", "아직 학교 다녀."

나 역시 "대학원 다니고 있어."라고 답하는데,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은 거의 정해져 있다. "공부 열심히 하네.", "그럼 교수 되는 거야?", "졸업하면 뭐 해?" 그때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하는 거지, 뭐."라고 넘기곤 한다.

사실 그 한 줄에 담지 못한 이야기는 훨씬 많다. 오늘 하루 종일 참가자를 구하려고 메시지를 돌렸다는 이야기, 이 길이 맞는지 문득 불안해진다는 이야기, 그런데도 어떤 날은 이 일이 꽤 재미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안부 인사로 꺼내기에는 무겁고, 설명하자니 길어질 것 같아 결국 한 줄로 답하게 된다. 그렇게 줄이고 나면 나의 요즘은 '대학원생'이라는 단어 하나로 남는다.

그런데 한 줄로 줄여 말하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는 '취업준비생'이라고, 이직을 고민하는 친구는 "매번 똑같지, 뭐"라고,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친구는 우스갯소리로 정부에서 말하는 '쉬었음청년'이라고 답한다. 그 한 줄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말이라기보다 더 묻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까워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한 줄로 답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한 줄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1-3 출처_부산시
4,5 출처_Unsplash
라이센스, Photo by B L



한 줄에 담기지 않는 청년들의 '요즘'

한 줄에 담기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한 줄로 답하게 되는 데에는 표현이 서툴러서만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섞여 있는 것 같다. 요즘 청년들은 저마다 짊어진 짐이 적지 않다. 취업과 이직에 대한 불안, 오르기만 하는 월세와 물가, 남들과 비교되는 속도,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각자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안부를 묻는 자리에서 그 무게를 꺼내 놓는 일은 쉽지 않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상대가 괜히 마음을 쓸 것 같고 상대도 비슷한 무게를 지고 있을 텐데 내 이야기까지 얹는 것 같아 미안해진다. 그렇기에 무난한 말로 대화를 마무리한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침묵이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우리는 서로의 요즘을 점점 알 수 없게 된다. 무거운 이야기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날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즐거움이나 새로운 시도까지 함께 접어 두게 되기 때문이다.

취업 준비, 이직, 대학원은 모두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시기는 설명하기 어렵고, 그래서 '준비 중'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진다. 하지만 '준비 중'이라는 말은 현재를 미래 뒤로 미뤄 두는 말이기도 하다. 그 안에는 이력서를 고치던 밤, 면접에서 떨어진 반복되는 일상, 퇴근 후 혼자 이어가는 공부, 새벽까지 끝나지 않는 분석 작업 같은 하루하루가 있다. 그 시간은 결코 비어 있지 않은데 한 줄로 말하는 순간 '아직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들리는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그 시간은 나를 붙잡아 준 순간이었다. 어느 아침, 막혀 있던 연구 계획이 갑자기 떠올라 서둘러 메모를 남기던 순간. 또 한 번은 실험이 끝난 뒤 참여해 준 학생이 "생각보다 재밌었어요."라고 말해 준 날. 대단한 성과는 아니었지만, 그런 순간만큼은 대학원에 다닌다는 내 하루가 분명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우리가 한 줄로 답하지 못하는 이


1


2


3


4



5

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오가는 안부 속에 마땅히 없어서일지도 모른다.

부산청년의 '남았다'와 '떠났다' 사이

부산에 살아가는 청년에게는 '요즘 뭐해?'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설명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기기도 한다. "서울 안 가고 여기서 뭐 해?", "그래서 여기서 뭐 해 먹고살아?" 같은 말을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수도권에 기회와 정보가 몰려 있다는 이야기가 익숙해진 만큼, 부산에 남는 선택은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한 일처럼 여겨지곤 한다. 주변에는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떠난 친구도 있고, 이곳에서 공부와 일을 이어가는 친구도 있다. 그러다 보니 부산에 또는 지역에 남은 사람은 "여기가 편해서"라는 한 줄을, 떠난 사람은 "거기 가면 기회가 많으니까"라는 한 줄을 준비해 둔다. 하지만 이 두 줄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한 줄'들과 다르지 않다.

나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편해서"라고 답하곤 한다. 한 줄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이곳의 분위기가 좋아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익숙함이 좋아서라는 이유가 함께 들어 있다. 그런데 '편해서'라는 말은 때로 도전을 피한 선택처럼 들리기도 한다. 편안함이 누군가에게는 안주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오래 공부하고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었다. 남는 이유가 꼭 기회가 없어서, 떠나지 못해서일 필요는 없다.

반대로 부산을 떠난 친구들의 한 줄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더 큰 무대에서 일해보고 싶어 서울로 간 친구,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해외로 간 친구. 그들의 선택은 꼭 '부산이 싫어서', '부산에서는 미래가 없어서'는 아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기회를 찾아 나선 선택에 가깝다. 그런데 떠

난 뒤에도 그 친구들의 일상에는 부산이 자주 끼어든다고 한다. 식당의 TV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경기하고 있을 때 유난히 집중하게 된다거나, 오랜만에 부산 바다에 가고 싶다거나. 요즘 SNS에서는 부산 사람들이 타지로 나갔어도 부메랑처럼 다시 부산에 돌아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자주 봐 왔다. 어쩌면 이것이 부산 청년들의 무의식적인 고집 아닐까.

결국 남는 사람에게도, 떠나는 사람에게도 각자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남았다' 또는 '떠났다'는 한 줄로만 설명하고, 그 사이에 있는 마음은 쉽게 지나쳐 버린다. 부산에 남아 있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 부산을 떠났다고 해서 부산과의 연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부산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남느냐, 떠나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부산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봐 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은 요즘 무엇이 되어 가는 중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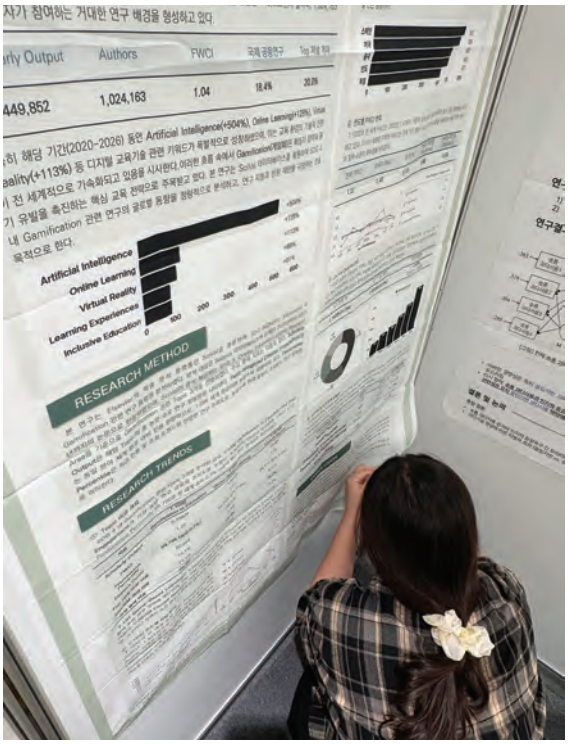
어쩌면 '무언가가 되는 중'이라는 상태는 취업하거나 학위를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취업하면 적응하는 중이고, 자리를 잡으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중이며, 그 뒤에도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가 되어 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준비 중'은 언젠가 벗어나야 할 임시 상태가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이어지는 우리의 현재형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부산 역시 아직 완성된 답을 가진 도시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청년에게 부산에 남으라고만 말하는 대신 부산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떠나는 선택도 응원하며, 언젠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 청년의 삶이 하나의 경로로 정해져 있지 않듯 도시의 미래 역시 하나의 모습으로 정해져 있을 필요는 없다.

어쩌면 부산이 청년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여기에 남아 있어"가 아니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을게"일지도 모른다. 떠나는 청년을 붙잡는 것만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만들 수 없고, 남아 있는 청년에게 머물 이유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각자의 선택이 새로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언젠가 부산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나 역시 아직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다. 대학원생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바란다. 내가 무엇이 되어 가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부산도 함께 무언가가 되어 가는 도시였으면 한다. 우리는 모두 아직 무언가가 되어 가는 중이고, 부산도 아직 어떤 도시가 되어 가는 중이니까.

글_이어진, 무언가가 되어가는 중





교토, 가을의 시간

글 사진_김지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사업부 간사







내가 해외출사를 처음 간 곳은 4년전 일본의 교토였다.

기요미즈데라의 붉은 단풍과 저무는 석양을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천년고도의 시간을 더욱 장엄하게 만들었다.

숲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과 저녁 노을빛에 자유롭게 거닐고
사람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오는 사슴공원의 사슴들의 모습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했고,
단풍 속 작은 지장보살의 미소에서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따뜻한 시선마저 느껴졌다.
돌과 대나무, 물 위에 내려앉은 단풍은 일본 정원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담아낸다.

화려한 색채 속에서도 교토의 풍경은 고요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이라 더 반가운 이 가을,
가을을 즐기러 어디든 떠나보자.

에스텔라

글_김창균 수필가

에스텔라! 내 삶의 허상, 내 환상의 유산. 나의 방황, 나의 감옥. 숭배의 신전, 벗을 수 없는 가면. 닿을 수 없는 혀의 공허한 굴림. 에스텔라!

영화 <위대한 유산>의 여주인공 에스텔라를 향해 나보코프의 <롤리타> 첫 문장을 오마주하였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영화에서 보여준 기네스 팰트로의 연기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건 롤리타와 같은 배덕의 향기였어요.. 둘 다 치명적인 에덴의 유혹이었지요. 하지만 금기된 욕망의 죄에서 침몰하는 롤리타와 달리, 에스텔라는 상대의 영혼을 유혹하여 냉정히 부숴버리는 치명적 마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덴의 하와이며, 반짝이는 독사과였습니다.

영화 <위대한 유산>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의 감각적 심리 묘사와 미장센은 다른 작품 <로마>, <그래비티>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탐닉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한 감각은 <위대한 유산>이 저에게는 최고였습니다.

실제 영화계에는 <위대한 유산>의 여주인공 기네스 팰트로 외에도 유혹적인 미인이 많습니다. 서양 배우를 예로 들더라도 짐 캐리와 공연한 <마스크>의 신인 여우 카메론 디아즈의 폭발적인 무대 등장 신, <원초적 본능>의 샤론 스톤이 다리를 꼬는 장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조명을 배경으로 하얀 벽 뒤에서 실루엣만 드러낸 채 허리를 흔들며 매혹적인 춤을 추는 킴 베이싱어의 스트립티즈 장면 등이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관능적 장면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능미가 미인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체의 비례와 균형이 잡힌 그리스 조각 같은 여인이 미인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질서와 체계 속의 완전한 미는 만질 수 없는 숭고함일 뿐입니다. 관능과 숭고는 아름답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 <위대한 유산>은 치명적 매혹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이 인간을 파괴하는 아름다움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독인 알폰소 쿠아론은 사람의 심리를 배경과 색채, 음악을 통하여 완벽히 그 분위기를 전해 냅니다. 첫 장면인 플로리다 어촌의 바닷빛을 보세요.. 가라앉은 청록색의 바다가 화면 가득히 비추면서 오프닝을 열어 보입니다. 어린 시절의 남자 주인공, 바닷가 소년 핀은 여기서 스케치북을 펼쳐 바다 생물의 그림을 넘깁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물의 색깔들. 기억하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색채의 모습. 이제 사실 그대로가 아닌 내 기억대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 내레이션은 알폰소 감독의 작품 의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따라가며 쓰는 글의 테제이기도 합니다.

오프닝의 잿빛을 띤 청록색 바다는 <위대한 유산>이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에 깊고 차가운 침묵이 가라앉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영화 전반을 아우르는 색채입니다.

이야기는 노라 딘즈모어라는 상류층 지주계급의 상속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낡고 거대한 저택 '파라디소 페르두토'에 홀로 칩거하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그녀의 부와 저택은 대대로 이어져 온 막대한 자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녀를 규정하는 것은 혈통이나 귀족이라는 신분 자체라기보다는 '시간이 멈춰버린 저택 속에서 부와 상처를 거머쥐고 신음하는 버림받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례식 날 자신을 버려두고 달아난 약혼자에게 평생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복할 수 없는 원한은 세상에 대한 증오가 되고, 복수의 칼날은 상처를 찌르는 차가운 흉기 에스텔라를 만들어 냅니다.

에스텔라는 어린 시절부터 노라에게 입양되어 사랑의 감정이 단절된 차가운 기계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녀의 상대역으로 핀(에단 호크)이 선발됩니다. 노라는 에스텔라를 통하여 자신을 버렸던 약혼자를 대신해 세상의 모든 남성에게 완벽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수단은 남자들이 상류층 여자의 부와 명예를 지닌 완벽한 미모의 에스텔라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늘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미지의 벽에서 좌절하는 영혼의 파괴입니다.

노라는 그 벽을 핀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네 마음을 부수고야 말 거야. 이건 엄연한 사실이지.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보증하건대, 그 애는 너를 끔찍하게 상처 입힐 거다. 그럼에도 너는 여전히 그 애를 쫓겠지. 사랑 참 대단하지 않아?"

이 대사들은 영화 속에서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대사가 아니라, 핀이 겪어내야 할 파멸적 운명과 에스텔라가 뒤집어쓴 페르소나의 강철 가시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결정적 대사입니다. 그 파괴적 복수심의 주입으로 에스텔라는 애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여신처럼 완전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AI와 같이 기계적입니다.

이 지점이 노라와 에스텔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에스텔라의 치명적 아름다움입니다. 노라는 극단적 복수심의 미친 광기였지만, 에스텔라는 증오와 사랑마저 소멸된 플로리다 해안의 잿빛 바다였습니다.

증오와 사랑은 서로 다른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파도의 너울일 뿐이죠. 물결이 솟구치면 증오가 되고 가라앉으면 사랑이 됩니다. 에스텔라는 그 너울이 비친 거울이었어요. 핀의 간절한 사랑이 투과할 수 없는 빛의 산란이었습니다. 그래서 핀은 그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었어요.

에스텔라는 핀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은 노라의 의도와는 다른 인간 파괴였어요. 증오는 남자의 절망을 불러들이지만 대신 또 다른 증오를 잉태합니다. 하지만 에스텔라의 거절은 증오가 아니라 나르시스였어요. 끝없이 사랑을 소모시키되 영원히 마실 수 없는 탄탈로스의 샘물이었습니다. 이건 마성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기애이며 자기 소모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성의 체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체계 이전의 혼란이에요. 먼지 속에 산란된 빛의 불확실한 나르시스죠.

에스텔라는 그 경계선에서 핀을 자극하고 거절했어요. 뉴욕의 한 여관방에서 핀은 그녀의 눈부신 누드를 그립니다. 에스텔라는 자신의 육체를 눈부신 빛 속에서 드러내지만, 사랑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핀에게 신전의 차가운 조각일 뿐이었어요. 마치 여신의 시혜처럼 옷을 벗어 주었죠.

이건 마치 카라바조가 그린 유디트가 유대의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참수하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디트는 침상에 목을 길게 늘인 홀로페르네스의 경악한 눈을 보며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환한 빛 속에 유디트는 성녀처럼 침착하고, 홀로페르네스는 지옥의 문에 들어선 자의 공포로 입을 벌립니다.

에스텔라는 커튼을 투과한 빛의 산란 속에서 자신의 나신으로 핀의 애정을 참수하였습니다. 핀은 에스텔라의 나신을 사랑으로 믿었고, 에스텔라는 벗은 몸을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가 이영애와 이별하며 건네는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의 불변성을 믿는 순진한 기도문 같은 대사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나르시스입니다. 그래서 이기성이라는 극도의 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극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죠. 독 있는 사과는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뱀의 키스를 받은 하와의 사과처럼 말이죠.

기네스 팰트로와 이영애가 영화에서 그리도 아름답게 보였던 이유가 그 독성에 있습니다. 그녀들은 남자를 파멸시키겠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뿐입니다.

<봄날은 간다>의 은수는 상우를 유혹할 때나 헤어지자고 말할 때도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순수한 감정의 흐름일 뿐이죠. 에스텔라 역시 비 오는 날 핀의 작업실에 찾아와 모든 걸 줄 것처럼 격정적인 밤을 보내고는,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남자와 결혼합니다. 핀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녀의 삶의 궤적이 흐르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남겨진 남자들은 원망할 명분조차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갉아먹는 미련의 굴레에 빠집니다.

상대를 파멸시키는 치명적 독성은 악의나 증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과 철저한 자기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텔라를 통하여 남자에게 복수하고자 하였던 노라 딘즈모어 부인의 증오심은 핀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파멸하는 자해극이었습니다. 그녀가 노렸던 핀의 영혼 파괴는 오히려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었고, 그녀 자신이 유디트의 홀로페르네스가 된 것이죠.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치명적 독은 자신의 결핍을 만족시키는 욕망의 추종으로는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핀은 상류사회에 속한 에스텔라에게 다가가기 위해 화가로서 출세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핀은 어린 시절의 장난감처럼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수도꼭지에서의 키스도, 작업실의 누드화도 의미를 가지지 못한 삽화 같은 소품이었죠. 오히려 에스텔라를 가지고 싶다는 핀의 욕망이 긴 세월의 상처 속에 가라앉았을 때, 에스텔라가 노라의 감옥에서 나와 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오랜 세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치명적인 무관심과 이기적 가해에서 벗어난 것이죠.

플로리다의 눈부시게 맑은 해변에서 핀과 에스텔라는 서로를 응시하며 손을 잡고 미소 짓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사랑에 대한 멋진 시각적 여운과 미장센입니다. 결국 우리가 좇았던 치명적인 매혹, 그것은 타인을 구원하는 성녀의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향해 닫힌 완벽한 나르시시즘의 성채였습니다.

아름다움이란 결국 체계 이전의 혼란이며, 서로의 상처가 부딪힐 때 번쩍이는 싸늘한 스파크이자, 끝내 양보할 수 없는 자기애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 지독한 나르시시즘의 독성과 배덕성을 해소하고, 차가운 잿빛 청록색 바다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집착을 거두고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돌려보내는 수족관의 상어처럼요.

오프닝에서 핀이 펼쳤던 그 스케치북처럼, 사실 그대로가 아닌 각자의 기억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또 부서집니다. 위대한 유산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폐허 속에서 비로소 에스텔라를 향한 욕망의 주먹을 펴는 순간…… 마침내 우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짜 살아 있는 아름다움의 숨결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민과 예술을 연결하고, 창작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다

부산문화재단 **송성준** 대표이사

제9대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송성준 대표이사가 지난 9월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부산매일신문 기자를 거쳐 SBS 보도국 부산지국장을 역임했으며, (사)시민정책공방 정책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부산의 다양한 현장과 정책을 두루 살펴왔다.

시민문화주권주의, 시민과 예술을 잇는 플랫폼 구축

송성준 대표이사와 문화예술 현장의 인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년문화기획자들과 함께 폐공장을 창작 공간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로 조성하고, 이후 부산대학교 후문에 '아지트'를 개관하면서 청년예술기획자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이어왔다. 언론인으로 활동한 경험에 더해 문화예술 현장에서 기획자들과 직접 소통해 온 시간은 그가 문화정책을 바라보는 바탕이 됐다.

그가 생각하는 현대예술의 핵심 가치는 '참여와 경험'이다. 시민이 예술을 감상하는 관람객에 머무르지 않고 창작과 활동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문화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민문화주권주의'의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예술가와 시민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가 주목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플랫폼 051'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부산예술콘텐츠은행'이다. 지역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시민과 기업, 기관이 이를 검색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작품의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이다. 미술 작품뿐 아니라 웹툰과 쇼츠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포괄하고, 아마추어 시민의 작품까지 등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독과 이용을 통해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연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의 윤곽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은 하나의 기관이나 사업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앞으로 부산문화재단과 부산문화회관, 부산예술회관·부산예총, 영화의전당, 축제조직위원회,

부산관광공사 등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수평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사업과 자원을 연결하고 공동 의제를 설정해 역할을 나눌 때, 문화예술은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다.

예술지원 100억 원 시대,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향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그는 비수도권 최초로 '예술지원 100억 원 시대'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부산시에 전달했다.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예술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부산의 예술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창작 역량과 문화자원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별 예술가와 단체, 기관이 축적해 온 성과를 시민과 시장이 만나는 장으로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와 기회를 만들어 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구상은 창작지원 확대와 유통 기반 조성을 별개의 정책으로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작품이 시민과 기업에 소개되며, 그 소비가 다시 창작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의 지원사업뿐 아니라 지역 예술인과 기업,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요를 형성하는 과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예술인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

그는 부산이 대학문화와 청년문화의 역량이 강한 도시였다는 점을 상기한다. 한때 서울 홍대 일대에서 활동한 예술문화 행사 기획자 가운데 부산 출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만큼 지역 청년예술인의 역량이 뛰어났지만 일자리와 활동 기반이 부족해 많은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청년예술인이 부산에 머물며 창작과 기획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청년예술인을 위한 사업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배 창작자와 청년들이 만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활동을 이해하며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과 창작 활동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중요한 과제다.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창업이나 새로운 기획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사람이 성장하는 문화생태계

송 대표이사가 그리는 부산문화재단의 미래는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예술인은 지역에서 창작을 지속하며, 기관과 기업이 함께 문화적 가치를 확장하는 도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넓히는 플랫폼 구축, 창작 지원 확대, 예술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 활성화, 청년예술인의 정착 기반 마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는 부산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시스템과 직원들의 헌신을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한다. 앞으로의 변화 역시 재단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부산시의 정책과 예산, 지역 기관의 협력, 예술인의 참여, 시민의 수요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역에 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다. 지역의 사람이 성장해야 지역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송성준 대표이사가 제시한 부산문화재단의 운영 방향은 부산이 지닌 문화적 자산을 시민의 삶과 예술인의 미래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그 구상이 실질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인터뷰 진행·글_정혜주

순간을 담는 일,
삶을 채우는 일

사진작가
신현숙

· 2011~2014 부경대 평생교육원 사진연구반 지도자반 수료
· 제26회 서라벌사진촬영대회 은상 수상
· 제62회 부산예술제 회원 우수 작품상 수상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로상 수상
· 제37회 부산사진대전 대상 수상
· 현) 부산사진작가협회 총무간사



삶의 현장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방법도 없다. 신현숙 작가는 좋아하는 사진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카메라를 처음 접한 건 고등학생 때였다. 친오빠가 구해 온 수동 필름 카메라의 작동법을 스스로 익히며 사진의 매력에 빠졌다고 한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야경을 찍으려 하루 종일 삼각대를 세워 두는 등 사진에 대한 추억이 겹겹이 쌓였다. 한동안 학업으로 카메라를 자주 들지 못했지만, 카메라를 좋아했던 추억은 아이들을 다 키우고 몰두할 무언가를 찾던 신현숙 작가를 다시 사진으로 이끌었다.

그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도 카메라만 잡으면 용감해진다. 10kg이 넘는 출사 가방을 메고 북인도 고산지대와 영하 20도가 넘나드는 중국 차간호, 방글라데시 등으로 떠났다. 첫 출사 여행은 2011년 북인도였다. 해발 5,000m 높이에 이르는 고산지대를 넘는 고된 일정이었다. 물티슈로 세수해야 할 만큼 불편한 상황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눈물이 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15일간의 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카메라 덕분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진을 찍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우연히 양 떼를 몰고 가는 목자들을 발견해 카메라에 담은 작품이 「쉼」, 「목자」이다. 사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찍은 사진인지조차 몰랐지만, 부산일보 사진대전에서 입상했다. 이를 계기로 사진에 더 몰두하게 되었다.

사진에는 여러 요소가 중요하지만, 신현숙 작가는 무엇보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담아내려 노력한다. 사진에는 촬영하는 사람이 조급했는지, 여유로웠는지, 혹은 자신감이 있었는지 그 마음이 투명하게 담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빛의 흐름을 관찰하고 나만의 감정과 해석을 더해 하나의 프레임을 완성한다. 그는 오랫동안 꽃꽂이를 하며 꽃의 배치와 전체적인 조화를 고민했던 경험이 사진 속 대상을 배치하고 화면의 균형을 살피는 감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끝난 직후, 방글라데시를 향한 출사로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다. 설레면서도 조급한 마음이 공존하는 날들이었다. 그는 우연히 길을 걷다 철창 너머의 남자를 발견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시선을 피하지 않을까 잠시 걱정했지만, 남자는 오히려 계속해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렇게 마주한 시선은 「응시」라는 작품으로 남았다. 신현숙 작가는 이 작품으로 올해 부산사진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응시」는 수직과 수평으로 교차하는 철장이 인물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 경계를 넘어 카메라를 향해 다가온 눈빛을 담았다. 철창은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사람의 눈빛까지 가둘 수 없었고, 그 눈빛에서 쉽게 꺾이지 않는 생명력과 인간의 존엄까지 느껴진다. 한순간의 마주침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다.

이처럼 우연한 순간이 작품이 되는 경험은 다시 카메라를 들고 나서게 하는 힘이 된다. 가파른 다리 밑으로 내려가거나(「삶의 현장」), 영하 20도의 얼음 호수 위에서 순간을 기다리는 일(「대_박」)은 무척 고된 과정이었지만,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 끝에 원하는 사진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무엇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무언가를 찍으러 간다는 그 설렘은 일상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고, 순간을 포착하는 카메라 셔터 소리는 중독처럼 앞으로 체력이 되는 데까지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든다. 신현숙 작가는 이전에는 공모전이나 사진대전을 위한 작품 활동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보여주는 사진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를 배우고 탐색하며 조금 더 여유롭게 카메라를 들고 싶다고 한다. 남들이 봐도 신현숙이 찍은 사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자신만의 색깔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좋아하는 일을 설명하며 들뜬 모습은 상대도 설레게 만든다. 신현숙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터뷰 내내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그만의 색이 담긴 작품을 전시에서 만나길 기대한다.

글_유다정 다정한세계 출판사 대표



쉼



대_박

시조의 씨앗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다

서관호 시조시인, 동시조의 길을 열어 온 시간



· 1948년 남해 출생
· 2004년 《현대시조》 등단
· 부산시조시인협회장 역임, 어린이시조나라 발행인 역임
· 공무원 문예대전 4회 입상, 성파시조문학상 수상 외 다수
· 시조집 『어떤 낭만』 외 22권

유사 이래 최초의 어린이시조문예지
《어린이시조나라》 창간,
그 목표는 세계유산 등재였다.
그 기반을 닦는 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형시로서의 그 모습을 굳건히 하는 것,
즉 시조는 이러한 정형시라고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정형이 아닌 것은 싣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어른의 동시조는 청탁을 하지 않고
책에서 정형인 것만 골라서 실었다.
이러한 문예지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뒤표지에는 광고도 싣지 않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닦는 곳이라는 말만 15년간 실었다.

어린이시조 전문지 《**어린이시조나라**》는
어린이들이 시조를 발표하는 시조의 텃밭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시조를 가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조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시조를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책과 자료를 지원하며 시조가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터전을 닦는 곳입니다.

시조와 처음 만나다

한 편의 시조가 한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마음에서 다시 많은 아이들의 가슴으로 번져 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학 교육을 넘어 삶을 가꾸는 일이 될 것이다. 서관호 선생의 문학 인생은 시조와의 만남에서 시작해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시조의 씨앗을 심어 온 시간이다. 서관호 선생이 시조를 처음 만난 것은 1971년이었다. 故 이명길 박사가 쓴 『첫걸음』이라는 책이 그 인연의 출발점이었다. 한 권의 책은 그에게 새로운 문학의 세계를 열어 주었다. 이명길 박사는 개천예술제 백일장에 시조 부문을 신설한 인물로, 시조 문학의 저변을 넓히는 데 힘을 쏟았다. 그가 펴낸 책을 통해 시조를 접한 서관호 시인은 차츰 그 고유한 가락과 절제된 언어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시조는 감상의 대상에만 머물지 않았다. 서관호 선생은 1969년 초등학교 교단에 서면서 어린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동시조 지도에 깊이 몰입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돕는 데 시조만큼 좋은 문학 형식도 드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관호 선생은 아이들에게 시조의 형식만 가르치려 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그들이 보고 느낀 것

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이끌었다. 꽃 한 송이, 친구와 나눈 이야기, 비 오는 날의 풍경,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작은 변화도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었다. 그의 교육은 시조를 교과서 속 문학에서 아이들의 생활 속 문학으로 옮겨 놓는 과정이었다.

삶의 경험이 시조가 되기까지

2002년에는 『현대시조』를 통해 등단하며 시조시인으로서 자신의 문학적 길을 공식적으로 열었다. 어린이들에게 시조를 가르치는 교육자이면서 자신 또한 시조를 창작하는 시인으로서, 그는 창작과 교육이 서로 떨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시조를 쓰는 사람이기에 아이들의 서툰 표현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시조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었다.

2003년 경주 양남초등학교 상계분교에서는 '시와 꽃과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축제를 크게 열었다. 시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문학의 장이었다. 시가 책 속의 활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꽃처럼 피어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실천으로 보여 준 자리이기도 했다. 그에게 문학은 삶에서 멀리 떨어진 특별한 세계가 아니었다. 일상의 경험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이후 그의 문학 활동 전체를 관통하는 교육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시조와의 인연은 교실로 이어졌고, 교실에서 자라난 꿈은 어린이 시조 문학의 터전을 만드는 일로 확장되었다.

일곱 시간의 가르침, 어린이 시조 문학의 꿈을 키우다

어린이들에게 시조를 가르치는 일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어린이 시조 문학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은 그 교육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하는 작업이다. 서관호 선생은 아이들이 시조를 읽고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며 문학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 어린이 시조 전문지 창간을 준비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서로의 시조를 읽으며, 문학적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어린이 시조가 일부 관심 있는 교사나 문인들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문학 활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다.

그는 창간을 준비하면서 한국 현대시조의 거목인 故 백수白水 정완영 선생을 찾아뵈었다. 전문지 창간의 취지를 설명하고 선생을 고문으로 모시기 위해서였다. 평생 시조의 아름다움을 지켜 온 원로 시조시인에게 어린이 시조 문학의 앞날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완영 선생은 고문직을 선뜻 수락하지 않으셨다. 고문으로 모시려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날의 만남은 서관호 선생에게 예상하지 못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정완영 선생은 긴 시간 동안 차 한잔 마시지 않고 시조 강의를 해 주셨다. 서관호 선생은 선생의 강의에 푹 빠져들었다. 시조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평생 탐구해 온 시인의 말씀은 어린이 시조 문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배움이었다. 시조를 대하는 자세와 문학을 향한 열정 그리고 시조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그날의 감동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다. 서관호 선생은 이후에도 두어 차례가량 정완영 선생을 더 찾아뵈었다. 시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신부터 시조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시조나라』 30호, 15년의 기록

한 시대의 시조를 이끌어 온 스승에게서 배움을 구하는 마음은 그가 어린이들에게 바라는 태도와도 닮아 있었다. 좋은 시조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자세히 바라보아

야 하며, 문학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배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실천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어린이 시조 전문지 창간의 꿈은 『어린이 시조나라』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다.

한 사람의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 15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어린이 시조 문학처럼 관심과 지원이 넉넉하지 않은 분야에서 전문지를 꾸준히 발행한다는 것은 문학에 대한 신념과 교육자로서의 책임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서관호 선생은 15년 동안 『어린이 시조나라』를 30호까지 발행했다. 한 권 한 권의 지면에는 어린이들의 시심을 북돋우고 동시조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미래의 시조 문학을 이끌어 갈 새싹들을 키우려는 노력이 담겼다. 그 결실 가운데 하나는 동시조 창작에 뜻을 둔 현직 교사 13명이 시조시인으로 등단한 일이다. 어린이들에게 시조를 가르치던 교사들이 직접 동시조를 창작하는 시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깊다.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시조를 이해하고 창작의 기쁨을 경험하면 그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다. 시조를 쓰는 교사는 아이들의 서툰 문장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 교사가 시조시인으로 성장하는 일은 개인의 문학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 동시조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넓히고, 어린이들이 시조를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서관호 선생은 어린이들에게 동시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아이들의 문학적 재능을 발굴하고 창작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새싹 시조문학상'을 신설했다.

그의 작품 또한 어린이 시조 교육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계와 만났다.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체인 아리스페이스가 제작한 무인 달 탐사선 '블루 고스트'가 달나라에 보내는 세계 예술작품 프로젝트에 200여 점의 작품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서관호 시인의 작품 「강촌의 달」이 발탁되어 실렸다. 우리 시조의 전통적인 정서가 세계를 향한 예술적 상상력과 만났다는 점에서 뜻깊은 경험이었다. 그러나 서관호 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특별한 성과나 화려한 이력만이 아니다. 그가 어린이 시조 교육을 통해 줄곧 강조해 온 것은 시조가 일부 문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는 시조를 생활문학으로 바라본다.

"시조는 특수 문학이 아니고 생활문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에는 그의 문학 교육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조가 어렵고 특별한 문학으로만 여겨진다면 어린이들은 쉽게 다가서기 어렵다. 정해진 형식과 운율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시조의 참맛을 알기 힘들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시의 소재를 발견하고, 그때그때 느낀 감정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시조는 비로소 살아 있는 문학이 된다.

『어린이 시조나라』 30호를 발행해 온 15년의 시간은 이러한 교육 철학을 실천해 온 기록이다. 현직 교사 13명의 등단, 새싹 시조문학상의 신설, 어린이들의 창작 활동을 꾸준히 격려해 온 노력은 모두 시조를 생활 속으로 끌어오려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한 권의 전문지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문학의 자리를 마련하고, 교사들에게는 창작의 길을 열어 주며, 시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작품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어린이 시조나라』가 15년 동안 쌓아 온 의미다.

시조의 전통과 미래, 그 영속성을 향하여

『어린이 시조나라』는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관호 선생은 그동안 자신이 일구어 온 어린이 시조 전문지의 발행을 한국시조시인협회에 이관했다.

오랫동안 정성을 쏟아 온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창간을 준비하던 첫걸음부터 30호를 발행하기까지 그 안에는 많은 고민과 노력, 어린이 시조 문학을 향한 애정이 쌓여 있다. 그에게 발행 이

관의 소회를 묻자, 아쉬움과 함께 어린이 시조 문학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조금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 어린이 시조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요. 시조의 영속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문학인의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일구어 온 일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다. 서관호 시인은 『어린이 시조나라』를 자신의 성취로만 남겨 두기보다 시조 문단의 공동 자산으로 이어 가는 길을 택했다. 15년의 노력을 내려놓는 아쉬움보다 어린이 시조 문학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 것이다. 한 사람의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 다음 세대의 몫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일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문학의 역사가 된다.

그의 시선은 이제 새로운 문학적 과제를 향하고 있다. 앞으로 시조시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자 그는 두 가지 계획을 밝혔다.

첫째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조 이론서를 완성하는 일이다. 오랫동안 시조를 창작하고 가르치며 쌓아 온 경험과 생각을 이론으로 정리해 시조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으로 남기고 싶다는 것이다. 시조의 형식과 원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창작과 교육의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체계화하는 일은 그가 걸어온 문학적 여정을 집약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는 동시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온 이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연혁을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엮는 일이다. 서관호 선생은 그들의 이름과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문학의 역사는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한 장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기록될 때 비로소 온전한 역사가 된다. 그가 준비하는 연혁집은 동시조의 뿌리를 돌아보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동시조 활동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믿음도 드러냈다. 국경을 넘어 시조의 정서와 가락을 나누고, 더 넓은 세계에서 동시조의 가능성을 펼쳐 나가는 일은 그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문학적 소망과도 맞닿아 있다. 동시조를 위해 헌신해 온 그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창작과 교육을 이어가며, 시조단의 든든한 거목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물거품 _ 서관호

시냇물 소용돌이 들여다 보노라면
바위를 떨치느라 바쁘고 바쁜 물살
그 위로 연신 피었다 사라지는 물거품.

시냇가 풀꽃들도 어느덧 지고 있다
하늘에 찬란하던 무지개도 사라졌다
이 세상 거품 아닌 게 있더냐고 묻는 듯.

글_김정 시조시인

손으로 쓴 문학

No. 58

말

정영일

처음 생겼던 그 숲길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처럼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흘러갈 수 있다면
그 끝이 어디라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겠지
위에서 흐른다고 마냥 흐르기만 하지는 않아
때론 웅덩이에서 날 저물고
별의 이야기에 졸다가
손등이 문드러져
물거품으로 사라져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남아 있어

작가노트 | 말이 무게가 있다면 땅속 깊이 있겠지. 말이 공기보다 가벼우면 지구 밖으로 나갔겠지.
그 말 가운데 손에 쥐고 싶은, 세상 마지막 날 가져가고 싶은 말 한 개.

글_정영일 (사)부산문인협회 편집위원, 시인

RE:VIEW

건축 과연 당신들은 어디에 살고 싶은가? _ 차윤석

영화 영화감독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산영화제의 다양성
부산, 서로 다른 영화의 자리 _ 김민경

영화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곁에 두기 _ 김민우

국악 푸른 바다가 소리가 되고, 국악이 파도가 되었다!
제12회 부산국악축제 〈창해성연〉을 마치고 _ 박정곤

과연 당신들은 어디에 살고 싶은가?

글_차윤석 건축이론연구가

2025년 부산의 해외 관광객 수는 3,643,439명으로 개항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국인을 포함하면 약 1억 4천 명 이상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다. 올해 2026년 8월까지의 해외 관광객 수는 공식자료에 따르면 3,434,620명으로 이 추세라면 분명 작년의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내 관광객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지난 몇 년에 걸친 K-팝과 영화, 드라마를 선두로 한 한류의 세계적 유행, 부산시의 관광 유인책, 크루즈와 다양한 항공 노선의 확대,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한 부산의 직간접적인 홍보 등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전년도 대비 소비액도 증가하는 추세로 일부에서는 드디어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성장이 반갑게만 여겨지지 않는다. 이들이 지갑을 여는 곳의 대부분은 쇼핑과 먹을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분석과 관광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바다 경치 감상 및 해안 명소 탐방'과 '로컬 맛집 탐방'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설적으로 부산이 내세울 만한 콘텐츠가 '자연환경'과 '맛집' 정도라는 방증이다. 부산이라는 이름을 듣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해수욕장'이나 '돼지국밥'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분명 반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유야 무엇이든 부산을 알아서 찾아와 준다는 것이 어찌 고맙지 않겠는가. 심지어 상어 한 마리를 보기 위해서라도 찾아와 준다면 말이다.

이들은 해운대를 찾아 바다를 보면서 반대편에 펼쳐진 마린시티의 야경을 즐긴다. 여기에 신선한 회라도 한 점 곁들여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산복도로와 부산의 산토리니라는 감천문화마을을 찾아 어린왕자와 여우 사이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화려한 야경과 알록달록한 벽화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기며 추억한다.

하지만 필자의 눈에는 이러한 현상이 마치 거대한 모순의 전시장처럼 보인다. 한쪽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초고층 빌딩과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가 스카이라인을 수놓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 년 전의 가난과 낙후를 그대로 껴안은 채 쇠락해 가는 원도심이 공존하는 것이다. 물론 도시의 모든 부분이 균일하게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은 필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도시 및 건축 경관의 양극화가 '관광'이라는 자본의 논리와 결탁하면서 더욱 고착화하고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의 해안선과 경관은 부산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관광 이미지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의 눈에는 이 경관들이 마냥 좋게 보



마린시티

이지만은 않는다. 자본이 바다라는 공공재를 조망권이라는 명목으로 사유화시킨 거대한 장벽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의 시선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경관이 아니라, 마치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자 자본의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화려한 해안 경관은 언뜻 도시의 발전을 대변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적 맥락을 지워버린 개발의 산물일 뿐이다. 관광 활성화와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허용된 규제 완화는 바다라는 공공재를 사유재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화려함에서 고개를 돌리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바로 전쟁의 역사와 노동자들의 삶이 축적된 산복도로와 감천문화마을 같은 원도심 지역이다. 문제는 이 소외된 지역마저도 '부산의 역사'라는 미명 하에 기괴한 방식으로 소비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낙후함과 주민들의 고단한 삶의 터전은 외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한 '뉴트로New-tro' 감성의 관광 상품으로 포장되고 있다. 좁고 가파른 계단, 다닥다닥 붙은 노후 주택들은 싸구려 페인트로 알록달록 도배되어 있고, 벽마다 그려진 날개들은 이색적인 풍경으로 소비되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수많은 건축가와 예술가, 도시계획가가 참여했지만, 결국 그 결과물은 '알록달록한 빈곤의 박물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부산의 이러한 풍경은 양극화가 자원이란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라는 현상조차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기발하다고 칭찬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모든 이들이 똑같이 살 수는 없다.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화려한 불빛을 자랑하는 동네가 있으며, 소박한 풍경을 보여주는 동네도 있기 마련이다.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될 수는 있을지 의문이다. 아픈 역사도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도시의 양극화도 다양성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양극화는 극복의 대상이지 이로 인한 결과적 불평등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양극화를 다양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과연 당신들은 어디에 살고 싶은가?"라고 한 번 물어보라. 그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 부산이라는 도시가 상업성과 자본을 기준으로 양분되는 현상은 다양성이 아닌, 불평등의 산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도시와 건축은 공동체의 역사와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란 말이 단지 교과서에만 배우는 공허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진 출처_부산관광아카이브 https://archive.visitbusan.net/index.nm

영화감독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산영화제의 다양성

부산, 서로 다른 영화의 자리

글_김민경 영화감독

부산에 가을이 오면 영화를 기다리는 마음도 함께 찾아온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영작을 살펴보고, 시간표를 맞추고, 예매를 준비한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하루의 일정을 바꾸는 일도 이 시기에는 낯설지 않다. 부산에서 영화제는 도시의 계절을 체감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다.

'영화도시 부산'이라는 이름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의 영화제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풍경이 나타난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산독립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인터시티영화제 등 각자의 관심과 시선으로 작품을 고르는 영화제들이 부산의 영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간다. 이번 글에서는 오랜 시간 관객과 함께해 온 영화제들을 중심으로, 도시 간 교류를 이어가는 영화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숫자보다 성격의 다양성이다.

먼저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의 영화와 만나는 넓은 입구다. 개·폐막식에서 좋아하는 배우를 직접 볼 생각에 설레는 시민도 있고, 유수의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작품을 기다리는 영화 애호가도 있다. 영화제를 즐기는 마음은 저마다 다르다. 관객은 익숙한 취향을 따라가다가도 처음 접하는 국가와 감독의 작품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무엇을 볼지 고르는 일은 자신의 관심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다. 때로는 소개 글 몇 줄에서 발견한 낯선 삶이 우리를 극장으로 이끈다. 그렇게 만난 영화는 우리의 생활 바깥으로 시선을 옮겨 놓는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는 영화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진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관객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표현하는 창작자가 된다. 그들의 작품은 어른의 기억 속 어린 시절과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어린이의 고민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청소년의 감정을 익숙한 말로 정리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 지켜보게 한다. 어린 관객에게는 다른 나라 또래의 생활을 발견하는 기회가, 어른에게는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된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영화의 길이와 형식에 관한 감각을 넓힌다. 짧은 영화에는 그 길이에 맞는 표현이 있다. 사건을 압축하거나 한 사람의 표정과 한순간의 감각에 머물기도 한다. 설명이 적어서 관객이 채워 넣을 자리가 커지는 영화도 있다. 여러 단편을 연달아 보면 비슷한 소재가 얼마나 다르게 표현되는지 발견하게 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와 함께 어떻게 보여주는지에도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다. 짧은 상영시간 안에서 만나는 여러 시선은 영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바꿔 놓는다.

영화부산 제작현장



부산독립영화제에서는 부산의 창작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 지역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그곳의 풍경을 촬영하는 일보다 넓은 의미가 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만나고, 제작의 조건을 찾고, 완성한 작품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하는 과정까지 포함된다. 영화 속에 반드시 부산의 유명한 장소가 등장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곳에서 빚어진 작품이 오히려 낯선 세계를 열어주기도 한다. 중요한 건, 이 도시에서도 저마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창작자들이 끊임없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인터시티영화제는 지역의 시선을 다른 도시로 넓힌다.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간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의 영화와 창작자를 연결해 왔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제의 첫 회부터 3회까지 운영과 프로그래밍을 맡아 연을 맺었던 만큼, 부산의 영화문화와 도시 간 교류를 한층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낯선 도시의 풍경 속에서도 그곳에 사는 사람의 고민은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다. 영화는 그렇게 다른 지역의 생활을 이해하는 창이 된다.

영화제를 즐기기 위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린이의 이야기든, 새로운 형식의 단편이든, 우리 지역에서 만든 작품이든 마음이 가는 한 편에서 시작하면 된다. 상영 뒤 다른 관객의 감상을 듣는 즐거움도 있다. 내가 지나친 장면을 누군가는 오래 기억하고, 내가 공감한 인물을 다르게 바라보기도 한다. 그렇게 영화 한 편이 대화로 이어지는 자리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부산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기회다.

물론 영화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회가 모든 시민에게 닿는 것은 아니다. 이름은 알아도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모르거나 시간과 거리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쉽게 발견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다. 처음 찾아온 관객이 다음에도 오고 싶어지는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영화제의 존재가 도시의 자랑을 넘어 시민의 생활 속 선택지가 되려면, 그 사이의 거리를 꾸준히 좁혀야 한다.

서로 다른 영화제들이 한 도시에서 지속될 수 있는 바탕에는 사람들의 꾸준한 활동이 있다. 창작자, 기획자, 관객이 영화제를 이어가고, 상영 공간과 공공의 지원이 이를 뒷받침한다. 영화제가 열리는 며칠을 위해 작품을 찾고 상영을 준비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부산의 영화제들이 저마다의 역사 속에서 쌓아온 관계와 경험은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영화가 관객을 만날 자리를 지켜주는 힘이다. 시민들이 이러한 경험을 누릴 때 '영화도시 부산'이라는 말은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가오는 계절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영화제의 시간표를 조용히 펼쳐보자. 마음이 이끄는 영화 한 편을 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한 편이 우리가 아는 부산의 풍경 위에 정겨운 표정 하나를 더해줄 테니까.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곁에 두기



글_김민우 영화평론가

올해도 어김없이 부산국제영화제가 돌아왔다. 수많은 작품이 각자의 비전과 표현 방식을 가지고 관객을 만난다. 그 중 '부산 영화'(지역 영화의 개념은 아직도 논의하고 있으니 편의상 부산 배경의 영화 혹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로 좁히도록 한다.)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은 손에 꼽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만의 것이 아니기에, 지역의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이해가 가면서도 아쉽기도 하다. 그럼에도 부산국제영화제에는 부산 영화가 꾸준히 나온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에도 역시 부산 영화들이 영화제를 찾았다. 그중 하나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미술을 전공한 감독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주제가 없어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따뜻한 기억이 서려 있는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면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주인공이자 감독의 할아버지인 박종웅은 애정 어린 태도로 손녀를 대하지만, 어딘가 이상하다. 밖에만 나오면 사람들에게 흔히 '쓰레기'라고 분류되는 것들을 주워 오기 때문이다. 영화는 일종의 미스터리와도 가까운 할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주력한다.

이여진의 데뷔작 〈바람의 빛깔〉은 개인의 사적 맥락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맥락으로 나아가는 전형적인 사적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사적 다큐멘터리가 당사자로서 적극적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관찰자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이 영화의 카메라는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거기에는 감독의 의도라기보다, 개입해야 하지만 관찰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그리고 영화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카메라 뒤의 감독과 카메라 앞의 박종웅을 뒤섞으며 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중반부, 행동의 원인으로 추측되는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살펴보자. 일견 관찰자의 그것에 가닿아 있지만, 세상에 아직 발붙이지 못한 감독 자신의 맥락이 결합하면서 '쓰레기'는 다른 의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박종웅에 따르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로 보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자원'으로 보인다고 한다. 고칠 필요조차 없었던 선풍기는 비록 원래의 모습과 다르고 불완전하지만, 그의 손에 의해 다시금 기능을 되찾는다. 그럼으로써 세상에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존재들은 다르게 정의되고, 그것은 다시 박종웅과 손녀의 현재와 맞물리면서 묘한 위로를 주게 된다.





감독이 할아버지의 세계와 융화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감독은 할아버지가 주는 물건들을 미술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세계와 박종웅의 세계를 결합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영화는 섣불리 화합을 선언하지 못한다. 관객들이 으레 기대한 반응, 그러니까 손녀의 전시를 보고 감동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감독 역시 마찬가지다. 할아버지는 나름의 성의로 선물을 준비하지만, 도무지 들고 갈 수 없는 상태의 물건이다. 할아버지가 표하는 섭섭함에 손녀는 고민하지만, 결국 그 물건을 들고 가지 않기로 한다. 그 순간 외면했던 할아버지의 어둠을 직시하게 되고, 감독은, 그리고 우리는 이 이해 불가능한 영역을 인정하고 각자의 판단과 세계를 존중하게 된다.

이렇듯 〈바람의 빛깔〉은 할아버지를 통과하면서도 결코 성장의 재료나 이해의 결말로 와닿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나의 그런 상태와, 피사체와 나의 그런 상태와, 불안한 미래와 나의 그런 상태만 솔직하고 그리고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영화의 미덕은 이렇게 다층적인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그런 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명랑하게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 그것은 감독 자신의 내레이션 톤과 더불어 삽입되는 귀여운 스톱모션 장면에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할아버지를 비극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태도에 기인한다. 그것은 단순히 관객들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채로 곁에 두기 위한 방식에 가깝다. 쓰레기를 자원이라 부르며 모으는 할아버지는 끝내 이해나 수용의 결말로 가닿지 못하지만, 적어도 자신만의 가치를 찾으며 버려진 물건들을 곁에 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할아버지가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곧 감독이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 순간, 이 영화의 형식과 주제는 조용히 포개어진다.

〈바람의 빛깔〉의 명랑함은 어두운 면을 지우는 장치가 아니라, 어두운 면을 안은 채로 함께 지낼 힘으로 읽힌다. 화해나 규명 없이, 한 사람을 오직 한 사람으로 남겨 두는 일,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정상'이라는 강력한 편견의 외피를 벗겨내고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보게 된다. 감독 이여진이 첫 작품에서 해낸 성취다.

푸른 바다가 소리가 되고, 국악이 파도가 되었다!

제12회 부산국악축제 〈창해성연〉을 마치고

글_박정곤 국악연출가

공연이 끝났다.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객석의 박수가 서서히 잦아든 뒤에도 한동안 무대에 머물렀다.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수없이 바라보았던 무대였지만, 막이 내린 뒤 바라본 무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마도 그 순간에는 내가 만들었던 무대가 아니라, 관객과 예술가들이 함께 완성한 하나의 바다가 그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12회 부산국악축제 〈창해성연滄海聲宴〉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했다.

"부산의 바다를 국악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산에서 바다는 너무 익숙한 존재다. 부산 사람에게 바다는 관광지가 되기 이전에 삶의 일부이고, 가족의 기억이며, 노동의 현장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바다는 어린 시절의 풍경이고,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이어온 삶의 터전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떠나고 돌아오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번 공연에서 바다는 단순한 배경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바다가 주인공이어야 했다.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강명옥 지회장으로부터 부산국악축제 연출 제의가 왔다. 금년 행사는 '새롭게 출발하는 국악협회의 위상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그의



프롤로그(신뱃노래)_문예분과 [와락심포니]



용왕고사_민속연희분과

열정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 마음을 알기에 심기일전으로 후배 작가 박황춘에게 〈창해성연〉의 스토리텔링을 부탁했다. 스토리텔링에 생각을 잘 녹여내면서 그렇게 〈창해성연〉의 연출은 시작됐다.

기존의 전통공연이 여러 종목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각각의 국악 장르가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서로 만나도록 하고 싶었다. 그래서 '바다의 숨'에서 시작해 '생명의 물결', '바람의 격랑', '기원의 노래', '공명의 바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의 바다'까지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순서가 아니라 한 편의 바다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고요했다. 문예분과의 국악관현악 [와락심포니]와 무용분과의 협업으로 시작한 '바다의 숨'_신뱃놀이는 바다가 깨어나는 순간을 표현하고 싶었다. 거대한 바다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숨결에서 시작한다. 그 숨결이 점차 생명이 되고, 생명은 움직임이 되고, 움직임은 마침내 파도가 된다.

이어지는 '생명의 물결'에서는 민속연희분과와 무용분과의 협업 「용왕고사」와 가야금병창과 관현악 협연으로 심청가 중 「화초타령」을 통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자 했다. 바다에 나가기 전 무사와 풍요를 빌었던 사람들, 자연 앞에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다시 바다로 나가야 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단순히 설명하기보다 전통의 소리와 장단 속에서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바다는 어느 순간 잔잔함을 버린다.

'바람의 격랑'에서는 공연의 호흡을 크게 바꾸었다. 창악분과와 관현악 협연인 「보렴」, 「범피중류」, 「남해 뱃노래」와 경기민요분과와 관현악 협연 「밀양아리랑」, 「뱃노래」, 「8자진 뱃노래」 등이 이어지면서 무대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도록 구성했다. 음악의 속도와 힘이 올라갈수록 관객들이 '지금 바다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바랐다.

국악 공연에서 음악과 연출이 따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소리가 파도가 되고, 움직임이 바람이 되고, 조명이 바다의 빛이 될 때 비로소 관객은 이야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는 푸른색을 중요한 시각적 언어로 사용했다. 특히 연주자들의 움직임을 단순한 입·퇴장이 아니라 밀물과 썰물, 파도의 움직임으로 바라보았다. 푸른 옷을 입은 연주자들이 무대에 들어오면 바다가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빠져나가면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를 원했다. 그 장면들이 음악과 연결될 때 무대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기를 바랐다.

한편으로는 열기를 더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트로트를 무대에 올렸다. 더구나 가수 강민주는 생각과 다르게 멋진 무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분위기가 한층



보렴, 범피중류, 남해 뱃노래_창악분과



서도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_선소리분과

더 올라왔을 때 찾아온 곡이 「기원의 노래」다. 바다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풍요의 공간인 동시에 두려움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 노래했고, 기도했고, 가족의 안녕을 빌었다. 시조분과와 무용분과 협업으로 「오륙도」와 「파도」, 선소리산타령의 「서도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 그리고 서도소리분과의 「배따라기」, 「연평도난봉가」 등 여러 곡을 통해 그 마음을 담아내고 싶었다.

이 부분에서 나는 국악의 본질적인 힘을 다시 생각했다. 옛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삶이 있었고, 노동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으며, 내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음악은 오래된 음악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살아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 '공명의 바다'였다. 부산을 대표하는 가야금병창의 김현주 명창과 제자들이 꾸민 창작곡 「꿈의 바다」는 이번 공연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면이었다.

앞선 무대에서 각각의 소리로 존재하던 전통음악이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만나고, 서로의 소리를 받아들이며 더 큰 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창해성연〉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었다.

작은 물결 하나는 작지만,
수많은 물결이 만나면 거대한 파도가 된다.

국악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판소리도, 민요도, 시조도, 가야금병창도, 농악도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소리가 한 무대에서 만나 새로운 울림을 만들 때 국악의 또 다른 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마침내 '신명의 바다'가 시작됐다.

농악분과의 힘찬 연희가 무대를 채우면서 이제 바다는 더 이상 무섭거나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함께 웃고, 함께 소리치고, 함께 뛰는 축제의 공간으로 변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에 깜짝 무대로 부산 시민이라면 다 아는 「부산갈매기」 떼창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 전통과 대중음악이 만나는 순간, 객석의 관객들도 더 이상 공연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공연의 일부가 된다. 특히 마지막에 객석 전체에서 「부산갈매기」가 함께 울려 퍼지는 순간에는 연출가인 나 역시 객석의 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공연은 무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만나는 순간 완성된다는 것을….

이번 〈창해성연〉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했다. 스토리텔링 작가와 연주자, 소리꾼, 연희자, 사회자, 스태프, 관계자 그리고 객석을 찾아준 관객들.

연출가는 그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모으는 사람일 뿐이다. 혼자서 바다를 만들 수는 없다. 수많

은 물방울이 있어야 바다가 되고, 수많은 파도가 있어야 바다의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연의 진짜 연출자는 무대에 함께했던 모든 예술가와 관객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공연을 마친 뒤 기사를 통해 관객과 기자들이 바라본 〈창해성연〉의 모습을 다시 읽었다. '바다가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었다', '한 편의 바다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국악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는 평가를 보면서 연출을 시작할 때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관객들에게도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특히, 부산에서 살아온 시민에게는 기억을, 부산을 찾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남기는 공연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연출가로서 가장 반가운 말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의 기억 속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공연장에서 웃었던 순간,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 힘차게 손뼉을 쳤던 순간, 혹은 공연이 끝난 뒤 부산의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 들었던 음악을 한 번 떠올리는 순간. 그것이 공연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창해성연〉을 통해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웠다. 국악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음악이 아니었다. 어떤 이야기를 담느냐에 따라 국악은 현재의 언어가 될 수 있고, 한 도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힘이 될 수 있으며,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부산은 그런 이야기를 품기에 아주 특별한 도시였다.

부산의 바다는 늘 움직인다. 파도가 들어오고 나가고, 바람이 불고 멈추며, 빛이 바뀌고 계절이 변한다. 하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억을 품고 있다.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다.

〈창해성연〉은 그 이야기를 국악의 언어로 풀어낸 시도였다. 완벽한 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번 공연은 부산의 바다와 국악을 어떻게 더 많은 이야기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질문이었다. 앞으로도 그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공연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무대의 불은 꺼졌지만 바다는 여전히 파도치고 있다. 그리고 그 파도 속에는 이번 공연에서 울려 퍼졌던 수많은 소리가 아직 남아 있다고 믿는다. 언젠가 또 다른 무대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그 소리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푸른 바다가 소리가 되고,
국악이 파도가 되었던 시간.

부산의 바다와 국악이 다시 만나 더 크고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예술가와 스태프, 부산국악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객석에서 끝까지 함께해주신 1,200여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창해성연〉은 끝났지만,
그 바다의 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물판굿_농악분과



차를 마시는 그곳이 어디든 바로 정토淨土이거늘 마음을 두기 위해 하필 명산을 찾겠는가

飮茶隨處淨土 栖心何必名山

밥은 육체적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이다. 인간이 숨을 쉬고 피를 순환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한, 밥을 먹는 일은 단 하루도 건너뛸 수 없는 생존의 절대 조건이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밥飯과 차茶를 함께 일컬어 다반사茶飯事라고 불렀다. 여기에 '일상'이라는 두 글자를 더하여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라고 하니,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은 인간이 살아가며 매일같이 반복하는 가장 평범하고 당연한 행위이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동작만을 뜻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시간의 흐름, 봄에 싹이 터 겨울에 내실을 더하는 계절의 순환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온기를 나누는 인간관계의 무수한 반복을 은유한다. 즉, 아주 흔하고 평범하여 굳이 의식하지도 않는 일상적인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차와 밥은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도 같다. 평소에는 그 존재를 특별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막상 우리 삶에서 사라지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마는 필수적인 바탕이다. 재미있는 점은 '다반사'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 차茶가 생존의 기본인 밥飯만큼이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밥이 육신의 허기를 채운다면, 차는 영혼의 허기를 달래며 일상의 결을 다듬어주는 보배로운 존재이다.

육신을 유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밥은 그저 어떤 방식으로든 배만 불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생물학적 생존만을 위해 수저를 들지는 않는다. 밥을 먹는 행위는 단순한 생리적 충족의 단계를 넘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온기를 나누는 하나의 의례가 되며, 때로는 삶의 애환과 공동체의 유대를 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음식 앞에서는 반드시 몸가짐과 격식을 갖추어 앉아, 그 식사 자리를 삶의 품위와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장으로 삼아왔다. 차 역시 마찬가지다. 일상다반사라는 말의 본래 뜻대로라면, 그저 편안한 옷차림으로 대접이나 큼직한 맥주잔에 찻잎 한 움큼 대충 털어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후루룩 마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목을 축이고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것만으로도 차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처럼 지극히 평범했던 차 마시는 행위는 인간의 정성과 미의식이 보태어지며 독특하고도 고급스러운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로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밥이 생존의 기초에서 식도락과 하나의 문화로 승화했듯, 차 역시 지극히 일상적인 음료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다듬어진 것이다. 기왕에

차 이야기를 시작하였으니, 이처럼 가장 평범한 일상다반사부터 차 문화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 깊은 결을 함께 살펴보자.

차를 마시기 시작한 역사적 시원始原이 언제 어디서부터인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인도에서는 더운 나라 특유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수인성 질병을 막고자 물을 반드시 끓여 마셔야 했고, 밍밍하고 밋밋한 맹물을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흔한 찻잎을 넣어 마신 것이 차 문화의 시작이었다고 본다. 사실 인도에서 차를 마신다는 것은 생수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더 나아간 바는 미미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인도와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렸다. 중국에서의 차는 초기에는 하늘과 조상에 올리는 제례나 종교의식의 엄숙한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왕실과 귀족 그리고 민간의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퍼져 나갔다. 인도에서는 말 그대로 차를 마시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생활 속의 일부이자 실용적 수단에 머물렀다면, 중국에서는 의식에서의 제물이나 병을 고치는 약으로 사용되다가 차츰 음료로 확산하면서 엄격한 격식과 미학을 갖춘 다도茶道와 다예茶藝의 영역으로까지 높이 발전하였다.

어떤 연유로 차를 마시기 시작하였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마시든 차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차에 관한 문학과 철학은 중국 다예를 떠나서는 제대로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차나무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수많은 차가 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차 문화가 서예·문학·도예·회화·정원 등 주변의 여러 문화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독자적인 미학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차 문화는 서로 긴밀하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다. 조선 후기 차 문화를 부흥시킨 초의스님이 쓴 『동다송東茶頌』은 '다도'라는 말을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한 당나라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을 바탕에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차 인문학을 담은 글로 평가받는 한재 이목李穆의 「다부茶賦」 역시 『다경』과 더불어 당나라 노동盧仝이 지은 「칠완다가七碗茶歌」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며 차의 정경과 정신을 읊으며 '내 마음의 차吾心之茶'라는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이처럼 차는 국경과 시대를 넘어 옛 선비와 승려, 민초의 삶 속에 가장 깊이 스며든 일상이자 문화이며 학문이었다. 그렇다면 옛사람들은 과연 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 문헌 속에 남아 있는 차의 위상을 들여다보면 차가 얼마나 철저하게 '일상다반사'였는지 실감할 수 있다. '개문칠건사開門七件事'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송나라 오자목吳自牧이 지은 『몽양록夢梁錄』에 등장하는 구절로,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고 잠들 때까지 집안 살림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일곱 가지 생활필수품을 의미한다. 그 일곱 가지란 바로 땔감柴, 쌀米, 기름油, 소금鹽, 장醬, 식초酢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차茶다. 밥을 짓기 위한 땔감과 쌀, 간을 맞추기 위한 소금과 장처럼 차 역시 여느 양념이나 식재료와 똑같은 반열에 올라


경덕진 茶友의 차실



차좌끽다且坐喫茶 잠시 앉아 차 한 잔_닝보 사찰안에 있는 차실

있었다. 경經이니 부賦니 하는 거창하고 높고 깊은 문장의 세계를 떠나, 차는 서민의 삶과 살림살이 한가운데에 깊숙이 뿌리내린 가장 생생한 실생활의 영역이었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끓이고 차를 내리는 것이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당연했던 시절의 풍경이다.

차의 위대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차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삶의 격조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고상한 양식으로 발전했다. 그것이 바로 문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취雅趣, 즉 사아四雅 또는 사예四藝로 일컬어지는 문화적 정수다. 사아四雅란 향을 피워 세속의 번뇌를 털어내고 마음을 맑히는 분향焚香, 계절의 꽃 한 송이를 꺾어 병에 꽂음으로써 생명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맞이하는 삽화揷花 그리고 고즈넉한 그림이나 글씨를 걸어두고 정신을 맑게 적시는 괘화掛畵, 거기에 하나 더 보탠 것이 차를 마시는 일이다. 좋은 물을 끓여 차의 향과 맛을 여유롭게 음미하는 품명品茗인 것이다. 이 네 가지 아취 속에서 차를 마시는 품명品茗은 단순한 기호품의 섭취를 넘어, 문인의 삶과 인품을 고결하게 가꾸는 최고의 의례가 되었다. 차는 사아四雅의 든든한 중심축이 되어 향, 꽃, 그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된 취미로도 충분히 제빛을 발하지만, 차향이 은은히 퍼지는 공간 안에서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병에 꽂힌 정갈한 꽃 한 송이와 벽에 걸린 아늑한 그림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장 깊은 감흥과 풍류의 세계가 열린다. 차를 마시는 그 순간, 지극히 소박했던 일상의 공간은 그 어떤 궁궐의 화려함보다 아름답고 고결한 예술의 장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괘화掛畵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상하는 대상이 단순한 산수화나 문인화 같은 그림에서, 마음을 울리는 시詩와 사詞 등의 글씨書藝로까지 그 폭이 넓어졌다. 오늘날 일본 다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도코노마床の間 역시 그 중심에는 언제나 족자에 적힌 정갈한 글씨가 자리하고 있으니, 이 또한 옛 문인들의 괘화 전통과 다름이 없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엄숙한 경구警句로부터, 가슴을 잔잔하게 울리는 한 줄의 시구詩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차를 마시는 주인장의 마음과 취향에 달려 있다.

차와 글씨, 그림과 향이 한데 어우러진 다실은 더 이상 단순히 네모난 사각형의 방이 아니다. 그곳은 속세의 번잡함을 잊게 만드는 하나의 독립된 우주이자 완성된 예술 세계가 된다.

한국의 선비들은 차를 마시며 시를 읊어 청담淸談을 나누었고, 일본의 다도에서는 족자와 꽃꽂이가 반드시 다실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는 차가 단순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음료를 넘어, 공간 전체를 하나의 완벽한 종합예술로 탈바꿈시키는 위대한 매개체임을 잘 보여준다.

명나라의 뛰어난 문인 원굉도袁宏道는 인생의 수많은 즐거움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큰 즐거움은 바로 '한가함閑'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한가함이야말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이자, 동시에 가장 단순하고도 순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대를 풍미했던 수많은 문인묵객들 역시 이 말에 깊이 공감하여 다양한 시 구절로 한가로움을 노래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수많은 한가한 순간들 가운데서도 결코 빠지지 않았던 최고의 순간은 바로,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조촐하게 차 한 잔을 기울이는 그 짧은 시간이었다. "음차수처정토 서심하필명산飮茶隨處淨土 栖心何必名山" 차를 마시는 그곳이 어디든 바로 정토淨土이거늘, 마음을 두기 위해 하필 명산을 찾겠는가. 중국 명나라의 은일 가사집인 『소창유기小窗幽記』에는 본래 "책을 읽는 그곳이 바로 정토"라는 구절이 나온다. 후대의 차인들은 이 글귀에서 '독서' 대신 '음차飮茶'라는 단어를 넣어 차의 본질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명문장으로 즐겨 써왔다. 이 구절은 차를 마실 때 번거롭고 복잡한 격식을 어떠하게 차릴 것인가를 논하는 문장이 아니다. 마음을 비우고 꾸밈없이 차를 마시는 바로 그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곧 번뇌가 사라지는 극락정토이자 마음의 안식처임을 역설한 것이다.

이 정도에 이르면, 차는 비로소 모든 거추장스러운 격식과 화려한 의례를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가장 순수한 '일상다반사'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슬며시 기대어 앉고, 비 내리면 빗소리에 잠이 드는 그 깊은 한가로움 속으로 들어가 보자. 마음을 울리는 글귀가 담긴 족자 앞에서 물을 올리고, 솔바람 소리처럼 들리는 물 끓는 소리와 함께 그날의 기분과 바람에 따라 마음이 가는 대로 차를 고르고 잔을 채워보자.

결국 차라는 존재는 지극히 소박한 일상다반사이면서, 동시에 삶을 가꾸는 가장 고귀하고 독특한 고급문화이다. 밥처럼 생존을 위해 매일 같이 찾아야 하는 생활의 필수품이면서도, 향과 꽃 그리고 그림과 한데 어우러져 문인의 풍류를 완성하는 위대한 예술적 매개가 된다. '좋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면 먼저 바탕을 하얗게 칠해야 한다繪事後素.'라는 공자의 말처럼 차를 마시려면 먼저 마음 바탕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말이겠다. 차는 단순한 식물성 음료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품격을 나직하게 드러내는 의례이자 예술이며 흘러가는 인간관계와 계절의 아늑한 순환을 은유하는 고요한 상징이다.

오늘도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히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그 평범함 속에는 이미 온 세상을 담아내는 거대한 의례가 숨어 있으며, 잔을 들어 입술에 적시는 그 순간은 곧 우리 삶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고 청아한 풍류의 완성이다. 수확의 향기와 황금빛 결실을 품은 가을 같은 탕색을 지닌 우리의 황차 한 잔이 어울리는 계절이 깊어간다. 바람이 품은 따스함이 더 옅어지면 무이산 골짜기 바위틈에서 자란 대홍포의 묵직한 암향이 절로 생각나겠다.

글_박태만 서예가


찻자리-항저우 동명사 제공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15화 —

「한 많은 내 청춘」과 '누나의 길'



1960년 킹레코드사에서 출시된 산업재해가요 제1호인 「4백환 인생비극」



산지가 많은 부산에는 곳곳에 핏줄과 같이 골목길이 얽혀있다. 골목길의 가치는 소통이다. 좁다란 이러한 공간을 통해 사람도 추억도 문화도 세월과 함께 흐른다. 수년 전, 원도심이 많은 동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색다른 길을 몇 개 만들었다. 그 가운데는 '누나의 길'이 있다.

'누나의 길'은 2015년경에 탄생되었다.[1] 범일골목시장에 들어서서 위쪽을 향해 걸어서 가다 보면 좁다란 골목이 나타난다. 골목 입구엔 아기를 업은 누나의 모습이 흑백사진에 담겨 있고, 그 곁에 '누나의 길' 간판이 세워져 있다. 골목길을 따라 서서히 올라가다 보면, 잊힌 산업화 시대의 여성 노동의 역사를 말해주는 우리 누나들의 흔적이 사진으로 붙어있다.

1960년 이후 범일동에서 안창마을은 달동네로서 유명했다. 연고도 없이 시골에서 올라온 여공들은 이곳에 셋방을 얻어 생활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인근 신발공장에 출퇴근하려면 이 '누나의 길'이 지름길이었다. 때로는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섰다가 저녁별을 보고 셋방으로 돌아오던 애달픈 터널과 같은 일상의 길이기도 했지만, 한참 멋을 부리며 또각또각 출근길을 밝혀주는 누나의 구두 소리는 골목길에 생기 넘치는 고동 소리가 되기도 했다.

누나라는 말에는 어린 시절 책갈피에 감춰둔 단풍잎처럼 소중하고 다정한 정감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누나의 길'은 그리움이 쌓이는 추억의 길이다. 이러한 맘에 끌려 현장을 찾은 그날, 나는 이 골목길 입구에서 왠지 서글픈 마음에 한동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누나의 길' 입구의 조형물.
왼쪽의 좁다란 골목길이 '누나의 길'이다.

열여덟 꽃봉오리 열아홉 꽃봉오리
눈물의 부산 처녀 고무공장 큰애기야
하루에 사백 환의 고달픈 품삯으로
행복하겐 못 살아도 부모봉양 극진하니
한 많은 내 청춘이 불꽃 속에 진단 말이냐

–「한 많은 내 청춘」 1절 가사

1960년 3월 2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있었던 국제고무공업주식회사에서 실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입사한 지 4~5일밖에 되지 않은 신입 여공이 아무 곳에다 긁으면 불꽃이 튀는 일명 딱성냥으로 불장난을 쳤다. 이를 본 동료 직원이 급히 제지하는 순간, 옆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고무풀과 본드에 불이 옮겨붙어 삽시간에 공장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 화재로 2층에서 근무하던 400여 명의 여공이 미처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해 62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당했다. 더구나 도난 방지를 위해 비상구를 막아둔 탓에 나무 계단 한 곳으로 많은 사람이 탈출하다가 무너져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날 희생된 대부분 여공은 가난 때문에 공부도 하지 못하고, 일당 400환(현 시세로는 1만 5천 원 상당, 한 달 급료는 40만 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던 10~20대 누이들이었다. 당시 이러한 죽음을 접한 국민은 마치 자신의 처지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슬퍼했다. 이런 참사의 아픔을 보고, 만든 노래가 「한 많은 내 청춘(원곡 「400환 인생비극」)」이었고, 곧 젊은 여공들의 진혼곡이 되었다.

이 가요의 노랫말은 우리나라 가요사에 가장 많은 노랫말을 짓고 히트곡을 낸 반야월이 작사하고, 작곡은 1940년대 우리나라 가요계를 이끈 1세대로서 '작곡의 괴재' 또는 '선율의 마술사'라 불리던 나화랑이 했다. 이처럼 당대 최고의 작사·작곡가가 만든 곡을 역시 당대 최고의 가수인 남인수가 불렀으니,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한 많은 내 청춘」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다룬 최초의 노래였다. 본래는 화재 사고가 있었던 1960년 그해에 「400환 인생비극」으로 킹스타레코드에서 발매가 되었으나, 1971년 프린스레코드에서 LP로 재발매하면서 제목을 「한 많은 내 청춘」으로 바꾸었다. 1960년 초는 전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집중한 때다. 더군다나 3월 15일에 있었던 선거가 부정선거로 알려지면서 4·19혁명이 일어나는 등 사회가 극도의 환란 상태에 빠져들었다. 정권 유지에 민감했던 시절이라 비록 산업재해의 아픔을 다룬 노래라 해도 너무 직설적인 노랫말에 대해 당국의 검열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이후로 이 가요는 원제목과 함께 서서히 잊혀 갔다.

고무신에는 어려운 시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흰 고무신보다 검정 고무신이 더 진하다. '검정 고무신'이 가요 제목으로 만들어져 인기리에 불리는 것도 그러한 정서에서 출발했는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조된 고무 신발은 검정 고무신이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여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콘이 되었다. 부산지역의 국제화학·태화고무·삼화고무·동양고무 등에서 대부분 생산되었고, 훗날 이들 회사는 우리나라 신발 수출 산업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 부산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의 신발업계가 임금이 낮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부산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데서 시작된다. 본래 부산 지역의 신발산업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8월 지금의 동구 좌천동 688번지에 일영고무공업사를 설립하면서였다. 이후 신발공장이 1925년에 21곳, 1933년에는 72곳으로 급증하게 되자, 일제는 동구 범일동에 삼화호모 등 13곳으로 합병 조치를 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할 때는 이들 신발공장은 군수공장 역할까지 했다. 그러다가 광복이 되면서 설립 시기와 자본 성격에 따라 크게 3그룹으로 결합하게 된다. 먼저 삼화호모에서 뿌리를 둔 삼화·보생·조



왕자표 고무신을 만들었던 국제고무공업(주)의 신발 제조 모습(부산박물관)



국제고무공업(주)의 화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참사였다.(위키백과)

선고무 등은 '적산 공장그룹', 경성·사상·천일·신흥·신라고무 등은 '토착자본 공장그룹', 해방 이후에 설립된 국제화학, 태화고무, 동양고무 등은 '신흥자본 공장그룹' 등 이렇게 삼파전을 띠면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부산을 대표하는 고무신 상표로는 경성고무의 '만월표', 국제화학의 '왕자표', 태화고무의 '말표', 삼화고무의 '범표', 동양고무의 '기차표', 진양고무의 '진양' 등이 있었다. 이들 고무신 공장은 주로 동천 주변을 무대로 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피란민과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여 고무신을 생산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신발 제조 기술이 들어와 헝겊으로 된 포화布靴: Canvasshoes와 인조가죽의 케미화Chemishoes 생산이 증가하였다. 특히,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경공업시대를 맞아 수출증진과 수입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국산품 애용을 강조했다. 당시 부산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소비성 제조 상품은 의류, 신발이었고,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 여성 근로자였다. 화재가 일어난 직후인 1964년경 부산의 고무제조업은 59개 업체로서 10,367명이 고용되고 있었고, 이 가운데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무신제조업체는 3곳이나 되었다.[2)]

1970년대 이후로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신발 주력 제품이 고무신에서 운동화로 바뀌게 된다. 이 무렵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활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이러한 동요와 함께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이 고무줄놀이로 동네 공터를 달구게 된다.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신발은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의 하나로서, 부산의 신발제조업은 전국 신발 수출의 약 77%를 차지하며 이 지역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이었다. 이곳에는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여성들이 낮에는 공장, 밤에는 학교에서 주경야독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불을 지핀 수출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가족과 사회에 헌신으로 살았던 '누나'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이 달라진다면, 그 아픔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누군가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노래라도 만들어서 불러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재해는 자연에 의한 것도 있고, 인재로 인한 것도 있다. 산업재해 가요의 근원이 되었던 국제고무의 화재는 대표적인 인재였다. 주로 자연재해는 태풍, 지진, 폭우 등에 의한 것이라 인간으로서 한계성이 있겠지만, 그 이면을 파고들면 자연재해라도 인재로 인해서 더 큰 피해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 일어난 해난사고가 그러하다. 일차 원인은 대부분이 폭풍우이지만, 과적과 무리한 운항 같은 인재가 한몫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로 불귀의 객이 된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가요는 어떤 것이 있을까?

1953년 1월 초 다대포 인근 해상에서 330여 명이 익사

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경호 침몰 사건'은 「여수야화」, 1970년 12월 겨울철 거문도 앞 해상에서 326명의 생명을 앗아간 '남영호 침몰 사건'은 「밤 항구 연락선」으로 진혼곡이 되었다. 인재 사고에 가까운 이 두 해난사고의 작사자는 역시 반야월이었다. 그리고 1993년에 서해안 위도 부근에서 292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해페리호 침몰 사건'은 「님 실은 페리호」, 2014년 304명의 희생자를 가져온 '세월호 침몰 사건'은 작곡가 윤일상이 작곡한 진혼곡이 노래가 아닌 반주로서 희생자를 위로했다. 육지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에 대해서도 진혼곡이 만들어졌다.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 42년이 지난 2019년 11월 11일, 당시 사고 날짜에 맞추어서 「익산역 시계탑」으로 발표되었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도 끔찍한 사고로서 남인수의 모창으로 유명한 가수 남강수가 「신이여 보호하소서」를 불렀다. 2022년 160명이 압사한 '이태원참사'는 이용주가 작곡한 「이태원진혼곡」, 2001년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에 대해서도 「6명의 용감한 천사들」이 진혼곡이 되었다. 이밖에 하늘에서 일어난 사고로는 1983년 9월 1일 269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이 있다. 그다음 해에 뮤지션 케리무어가 「Murder in the Skies」를 불러 영혼을 위로했고, 1993년에는 보컬그룹 [삶 사람 사랑]이 「할머니와 비행기」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때 부산을 일컬어 '불의 도시', '화마의 도시' 또는 '불산'이니 하는 말이 따라붙을 정도로 화재 도시로 유명했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는 6.25 전쟁 이후였고, 대개 겨울철에 국제시장과 용두산 주변의 판잣집이 화마의 온상지였다. 이렇게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하면 어디 지역 수장의 마음인들 편할 리 없다. 고민 끝에 당시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은 화재를 막고자 1955년 정월 대보름날에 '화재예방비'를 용두산공원에 세웠다. 사각형 안에 불 '火'를 가운데 적고 사방에는 물 '水' 자를 적어서 불과 물의 상극을 부적처럼 비석에 새겨 화마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산업현장에는 대형화재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로 인해 비운의 누나, 비운의 형이 생기면 가슴 아프다. 그날 '누나의 길'에서 한동안 발걸음이 멈췄던 것도 바로 이 골목길을 걸었던 누군가의 누나가 꽃다운 나이에 불꽃 속으로 사라진 아픔이 긴 세월을 건너 전해진 게 아닐까.

글_이용득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장



부산진구 부암동 진양교차로에 세워진 신발 조형물


용두산공원의 '화재예방비'에 새겨진
물水과 불火의 상극을 표시한 부적 모습

1) '누나의 길'과 상통하는 길이 부산진구청에서 같은 해에 조성한 진양사거리의 '황금신발 테마거리'다. 전자가 산업인력이 오간 추억의 통로였다면, 후자는 신발 제조 산업의 현장임을 보여주는 거리의 신발역사관이라 할 수 있다.

2) 『부산시사』 제2권, 제3장 산업 「공업화 기반 조성기와 부산 제조업」, 1990, p.1126

정신이 된 손, 제도가 된 정신

피렌체 아카데미아에서 한국의 실기실까지

글_박은주 미술평론가

여는 글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

1 **정신이 된 손_피렌체가 스스로 들려준 이야기**
1563년, 하나의 문턱
길드의 세계와 장인의 존재론
▸ 신플라톤주의의 전회_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
▸ 디세뇨-창조의 형이상학
콘체토와 예술가의 탄생

2 **제도가 된 정신_근대 미술제도의 계보**
칸트_천재와 예술의 자율성
헤겔_예술의 정신적 소명과 그 과거성
푸코_예술가를 만드는 제도와 담론
부르디외_장, 문화자본 그리고 순수한 시선의 사회사
구성되었으나 가짜가 아닌 것_발생과 타당성 사이
침전물로서의 근대 미술제도

3 **이식된 아카데미_한국의 실기실**
물음 없이 도착한 형식_도쿄미술학교라는 회로
석고가 물러난 자리_오늘의 실기실
아카데미에서 시각문화까지_서양 미술교육의 갱신
물음을 되돌려주는 교육_나아갈 방향
물음을 제도로_구체적 개선의 방향
개설되지 못한 강의_전자조각론 서설

닫는 글 다시, 자정의 실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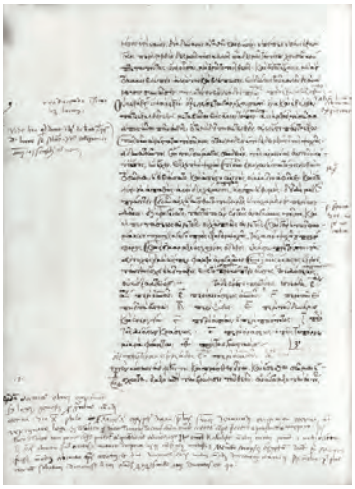
마르실리오 피치노(Marsilio Ficino)의 플라톤 라틴어 번역본(Platonis Opera), 15세기 후반



정신이 된 손 _ 피렌체가 스스로 들려준 이야기

신플라톤주의의 전회_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

실기실에서 가장 흔히 듣는 칭찬이 잘 그렸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똑같이 그렸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사진기가 있는데 왜 아직도 그리고 있는가. 여러분도 이 질문을 어렴풋이 품어 보았을지 모른다. 우리는 잘 그린 그림이 실물과 똑같은 그림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안다. 실물보다 더 실물 같은 그림이 시시할 때가 있고, 닮지 않았는데 정확한 그림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는 그 형상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대상에 있는가, 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가.



플로티노스 『엔네아데스』(Ioannes Scoutariotes 필사본), 1460년경, 파리 국립도서관, Gr. 1816.
(피치노가 연구하면서 남긴 친필 주석과 번역 메모 포함)

이것은 미술의 질문이기 이전에 철학의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처음 대답한 사람이 플라톤이다. 그런데 이 철학은 처음에는 예술을 결코 반기지 않았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화가를 침대의 이데아를 만드는 신, 그것을 모방하여 실제 침대를 만드는 목수, 다시 그 침대를 모방하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는 삼중의 구조 속에 배치하며, 예술을 이데아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진 모방의 모방으로 낮추었다. 이 구도에서 예술가는 진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이다.

여기서 결정의 전회를 이룬 것이 플로티노스(Plotinus; 204~270)이었다. 신플라톤주의를 연 그는 자신의 책 『엔네아데스』에서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폄하를 뒤집는 하나의 통찰을 내놓았다. 그는 예술가가 눈앞의 자연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 자체가 유래하는 형상의 원리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든 유명한 예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피디아스(Phidias; 기원전 480년경~430년경)의 제우스 상이다. 그는 어떤 감각의 모델을 보고 제우스를 조각한 것이 아니라, 만약 제우스가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정신 속에서 파악하여 그것을 대리석에 새겼다는 것이다. 이 통찰의 힘은 놀랍다. 예술이 모방의 모방이기는커녕, 오히려 감각의 자연을 넘어서 예지의 형상에 직접 다가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르네상스의 사상가들은 플로티노스의 이 통찰을 예술론으로 확장하였다. 예술가는 눈앞의 자연을 단순히 모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 속에서 보다 완전한 형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존재로 이해된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이데아가 자리를 옮긴다. 플라톤에게 이데아는 예술가의 정신 바깥에, 그의 위에, 초월의 실재로서 존재하였다. 그러나 신플라톤주의를 거쳐서 르네상스 예술론에 이르면 그 이상적 형상은 점차 예술가의 정신 안으로 옮겨온다. 형상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지성 속에 있다. 20세기 미술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 1892~1968)가 그의 고전이 된 연구에서 밝혔듯이, 이데아라는 개념은 이 과정을 거치며 형이상학으로 외재하던 것에서 예술가의 내면에 거하는 정신의 형상으로 변모한다.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 1509~11, 바티칸.
화가는 자신이 철학자들과 같은 반열임을 그림으로 선언하였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고 싶다. 이것은 파노프스키의 강력한 테제이지, 저절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를 예술 격상의 유일한 원인으로 세우는 것 또한 지나친 단순화이다. 미술이 지성의 자리로 올라간 데에는 신플라톤주의만큼이나 다른 힘들이 함께 작용하였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온 능력심리학이다. 정신 속에 형상이 맺힌다는 관념은 플로티노스의 유출설만이 아니라 감각에서 표상을 거쳐서 개념에 이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 구조와도 이어져 있었다. 다른 하나는 수사학이다. 예술가가 착상을 먼저 세우고 그것을 형태로 옮긴다는 생각은 웅변가가 인벤티오inventio, 곧 할 말을 먼저 찾고 그것을 배열한다는 오래된 수사학의 절차와 닮았다. 콘체토라는 말이 뒤에 그토록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은 이 수사학의 토양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힘은 공방의 실천 자체이었다.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 1377~1446)가 원근법을 수학으로 정리하고,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1404~1472)가 회화를 기하학과 시각이론으로 설명하며,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가 해부학과 광학과 유체역학을 연구하던 그 실천이, 회화가 더 이상 단순한 손기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먼저 보여주었다. 철학이 예술가를 정신의 존재로 선언하기 전에, 작업대 위에서 이미 회화는 앎을 요구하는 활동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술사학자 마이클 백샌덜(Michael Baxandall; 1933~2008)이 15세기 이탈리아의 회화를 계약서와 상거래와 설교의 조건 속에서 읽어낸 것은 이 점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형상이 하늘에서 정신 속으로 내려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옆에는, 안료의 값을 흥정하고 납기를 다투던 손의 세계가 나란히 있었다. 이 둘을 함께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카데미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지어낸 가장 근사한 판본만을 참으로 믿게 된다.

그럼에도 그 판본의 힘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신플라톤주의는 인간의 영혼을 신적 정신의 불꽃으로 보았고, 인간의 지성이 예지의 세계를 파악할 능력을 지녔다고 믿었다. 예술가가 정신 속에서 이상적 형상을 인식한다는 관념은 바로 이 인간관 위에서만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미술이 지성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은 인간의 지성이 신적 창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르네상스의 확신이 미술에서 표현된 한 형태이었다. 피렌체 아카데미아가 플라톤의 이름을 빌려 세워졌을 때, 그것은 이 확신을 제도로 선언하는 행위이었다. 그리고 이 확신은 곧 하나의 개념 속에 응축되어 르네상스 예술론의 심장이 된다. 그 개념이 바로 디세뇨이다.

디세뇨_창조의 형이상학

데생이 기본이다. 이 말을 여러분은 몇 번이나 들었는가. 나는 셀 수 없이 들었다. 그런데 왜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왜 하필 데생인가. 왜 색은 나중인가. 왜 형태가 잡히기 전에는 붓을 들면 안 되는가. 나는 이 순서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 주지 않았다. 그저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이 순서는 취향도 관습도 아니고, 오백 년 전에 세워진 하나의 형이상학

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형이상학의 이름이 디세뇨disegno이다.

디세뇨를 이해하려면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가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곳에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의 다비드가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다비드로 가는 복도 양옆에 서 있는 미완성 조각들이다. 흔히 노예 연작이라 불리는 것들인데, 인물들이 아직 대리석 덩어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반쯤 갇혀 있다. 어깨는 드러났는데 다리는 아직 돌이고, 얼굴은 거친 정 자국 속에 묻혀 있다. 미완성이니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나는 그 복도를 이 책에서 가장 잊기 어려운 장면으로 꼽는다. 거기서는 형상이 물질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을 문자 그대로 목격하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는 돌 속에 이미 형상이 들어 있고 조각가는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을 걷어낼 뿐이라고 하였다. 그 말이 겸손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음을, 그 복도는 눈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이탈리아어에서 디세뇨는 흔히 드로잉이나 소묘를 뜻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디세뇨는 훨씬 깊고 넓은 뜻을 지녔다. 그것은 단순히 선을 긋는 행위가 아니라, 머릿속의 형상을 질서 있게 구성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창조의 원리 자체를 뜻하였다. 1563년에 피렌체에서 세워진 최초의 공식 미술 아카데미의 이름이 아르티 델 디세뇨, 곧 디세뇨의 예술들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회화, 조각, 건축이라는 세 예술은 서로 다른 재료와 기술을 다루지만, 이 명명은 그것들이 하나의 공통된 정신의 원리에서 발원한다고 선언한다. 디세뇨는 이 세 예술을 하나로 묶는 형이상학의 접착제와 같은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론가들은 회화, 조각, 건축이 서로 다른 기술처럼 보일지라도 모두 동일한 정신의 과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였다. 화가는 화면을 구성하기 전에 먼저 형태를 구상하고, 조각가는 대리석 속에서 이미 완성된 인체를 상상하며, 건축가는 공간을 짓기 전에 머릿속에서 건물 전체를 설계한다. 이 모든 창작은 손보다 먼저 정신 속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디세뇨는 선을 긋는 기술이 아니라 사유가 형태를 얻는 과정이며, 인간의 지성이 물질을 조직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앞 장에서 본 신플라톤주의의 전회가 하나의 미술 용어 속에 결정화되는 것을 목격한다. 정신 속의 이상적 형상이라는 관념이 디세뇨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

이 원리에 처음으로 또렷한 정의를 준 사람이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 1511~1574)이다. 그는 『미술가 열전Le Vite』에서



미켈란젤로, 「깨어나는 노예(Awakening Slave Prigione che si ridesta)」 대리석, 높이 약 267cm, 1525~30년경. 머리가 끝내 돌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미켈란젤로 「노예상」 연작 4점이 서 있는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 복도



페데리코 추카리, 『화가·조각가·건축가의 관념(L'Idea de' Pittori, Scultori ed Architetti)』, 1607. 내적 디세뇨와 우리 안의 신의 표징이라는 말이 이 책에서 나왔다.

디세뇨를 회화와 조각과 건축이라는 세 예술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세 예술은 재료도 손놀림도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정신에서 태어나며, 그 정신의 이름이 디세뇨라는 것이다. 바사리에게 디세뇨는 밑그림을 그리는 손기술이 아니라, 예술가의 상상력과 지력이 형상을 향해 작동하는 지적 과정이었다. 화가는 자연을 눈으로 관찰하여 그 가운데 아름다운 요소를 지성으로 걸러내고, 그렇게 정신 속에 세운 형상을 손으로 구현한다. 그러므로 바사리의 디세뇨는 자연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자연을 재료 삼아 정신이 벌이는 창조의 활동이다. 바로 이 정의를 통해서 바사리는 그 무렵 수공업자로 취급받던 미술가를 지력을 갖춘 예술가의 반열로 끌어올렸다. 손이 하는 일에 정신의 이름을 붙여 준 것이다.

바사리가 디세뇨를 정신의 구상과 손의 실행이 맞물린 하나의 총체로 보았다면, 르네상스 후기에 이르면 그 하나가 두 단계로 나뉘어 설명되기 시작한다. 하나는 예술가의 정신 속에서 형성되는 내적 디세뇨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이 종이와 캔버스, 대리석, 건축물 위에 구체의 형태로 실현되는 외적 디세뇨이다. 눈에 보이는 선은 오로지 결과일 뿐이며, 진정한 디세뇨는 이미 그 이전에 정신 속에서 이루어진 창조의 질서이었다. 이 구분을 가장 극적으로 밀고 나간 이는 마니에리스모manierismo 후기의 화가이자 이론가인 페데리코 추카리(Federico Zuccari; 1540/41~1609)이었다. 그는 『화가, 조각가, 건축가의 관념』에서 내적 디세뇨를 우리 안에 있는 신의 표징segno di Dio이라고 불렀다. 디세뇨라는 말 속에서 신의 표징을 읽어낸 이 어원의 상상은 단순한 말놀이를 넘어서 하나의 형이상학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인간의 정신이 형상을 구상하는 능력은 신이 세계를 창조할 때 지녔던 것과 동일한 능력의 불꽃이며, 예술가의 내적 디세뇨는 인간 안에 깃든 신적 지성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보를 달아 둔다. 추카리의 이 어원 풀이는 그가 주장한 것이지 언어학이 확인해 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예술가에게 최고의 존엄을 부여하고 싶었고, 그 소망이 낱말의 형태 속에서 신의 흔적을 읽어내게 하였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배울 것은 어원의 진실이 아니라, 한 제도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높은 곳에 두고 싶어 하였는지이다. 그럼에도 이 상상이 도달한 논리의 귀결을 보면 이 개념의 야심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예술가의 정신 속 형상이 신적 지성의 반영이라면, 예술 창작은 신의 창조를 인간의 차원에서 되풀이하는 행위가 된다. 여기서 예술가는 더 이상 자연의 모방자가 아니라 또 다른 창조자인 알테르 데우스Alter Deus, 두 번째 신으로 격상된다.

이 두 번째 신이라는 표현은 추카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르네상스가 오래 벼려 온 하나의 관념이었다. 중세의 신학은 신을 데우스 아르티펙스Deus artifex, 곧 세계를 설계하고 빚어낸 장인으로 그렸다. 신이 자기 정신 속의 관념을 따라서 세계를 창조하였다면, 자기 정신 속의 형상을 따라서 작품을 짓는 예술가는 그 창조의 방식을 인

간의 자리에서 되풀이하는 셈이다.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위대한 예술가와 시인을 알테르 데우스, 곧 또 하나의 신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크리스토포로 란디노(Cristoforo Landino: 1424~1498)가 단테를 거의 또 하나의 신처럼 기렸을 때, 그리고 피코 델라 미란돌라(Pico della Mirandola: 1463~1494)가 「인간 존엄에 관한 연설」에서 인간을 스스로 제 모습을 빚는 자유로운 조형자로 그렸을 때, 예술가를 신의 곁에 세우는 이 사유는 이미 그 시대의 공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격상에는 위험한 모서리가 있었다. 오직 신만이 무에서 창조하며ex nihilo, 인간은 결코 재료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예술가는 대리석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있는 대리석에 형상을 줄 뿐이다. 그러므로 르네상스는 이 관념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예술가가 신의 권능을 나누어 가진다고는 말하지 않고, 다만 신의 창조 방식을, 곧 정신 속의 관념을 따라 형상을 부여하는 그 방식을 인간의 규모에서 닮는다고 말한 것이다. 두 번째 신은 첫 번째 신의 흉내가 아니라 그 방식의 메아리이다. 이 아슬아슬한 존엄은 이후 근대의 천재에게 고스란히 상속된다. 천재는 이 영광과 더불어, 홀로 세계에 형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 무게까지 함께 물려받는다.

이 관념이야말로 근대의 천재 개념의 먼 조상이며, 이 씨앗이 두 세기 뒤 칸트에게서 어떻게 초월론으로 다시 태어나는지를 뒤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바사리와 추카리를 나란히 놓으면, 디세뇨라는 하나의 낱말이 반세기 사이에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가 드러난다. 둘은 세 자리에서 갈린다. 첫째는 철학의 성격이다. 바사리의 디세뇨가 자연을 관찰하고 걸러내는 경험 위에 선 지력이었다면, 추카리의 디세뇨는 경험을 딛고 넘어서서 신학과 형이상학의 자리로 올라간다. 앞엣것이 인간의 고도화된 역량이라면, 뒤엣것은 신이 인간의 영혼에 붙여 준 창조의 불꽃이다. 예술가는 자연을 관찰하여 그리는 자에서, 내면에 이미 있는 신성한 원리를 발현하는 자로 바뀐다. 둘째는 개념의 분류이다. 바사리는 정신의 구상과 손의 실행을 굳이 갈라놓지 않고 하나의 총체적 지적 행위로 보았지만, 추카리는 그것을 내적 디세뇨와 외적 디세뇨로 또렷이 갈랐다. 내적 디세뇨는 물질의 형태를 얻기 전에 정신 속에 있는 순수한 관념이며, 신과 천사와 인간이 함께 나누어 가진 초월의 원리이다. 외적 디세뇨는 그 관념이 선과 색을 통해서 캔버스와 대리석에 옮겨진 결과물이다. 셋째는 예술가의 지위이다. 바사리의 디세뇨가 미술가를 장인에서 지식인으로 끌어올렸다면, 추카리의 디세뇨는 그를 한 걸음 더 밀어 올려 지상에서 신의 창조를 대행하는 존재로 만든다. 인간이 예술을 창조하는 일이 신이 세계를 창조한 방식의 축소판이 되는 것이다. 같은 낱말이 경험의 언어에서 신학의 언어로 옮겨 가는 이 반세기가, 예술가라는 존재가 장인에서 신의 대리인으로 격상되는 길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그러나 디세뇨의 형이상학이 지닌 진정한 힘은 그 존재론의 순서를 뒤집은 데 있다. 장인의 세계에서 지식은 손끝에 있었고, 형상은 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디세뇨의 세계에서는 그 순서가 뒤집힌다. 형상은 먼저 정신 속에 완결된 채로 존재하고, 손의 작업은 그 완결된 형상을 물질 속에 옮기는 이차의 실현일 뿐이다. 정신이 앞서고 손이 뒤따른다. 이 뒤집힘이야말로 미술을 지성의 영역으로 편입시킨 결정의 논리이었다. 창조의 본질이 정신 속의 형상 구성에 있다면, 예술의 우열은 손의 숙련이 아니라 정신의 깊이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신의 깊이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개념이 디세뇨와 나란히 등장한다. 그것이 콘체토concetto이다. (다음 호에 계속)

(사)부산예술후원회, 박국영 작가에 예술인복지지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사)부산예술후원회(회장 김정기)는 지난 8월 28일 투병 중인 서양화가 박국영 작가를 만나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부산 예술의 발전과 지역 예술가 지원의 뜻을 담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국영 작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빠른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국영 작가는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서정적인 풍경을 주제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예술후원회 김정기 회장과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이 참석해 작가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작가의 재활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예술후원회 김정기 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역 예술인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산문화회관·부산예총, 부산 예술문화 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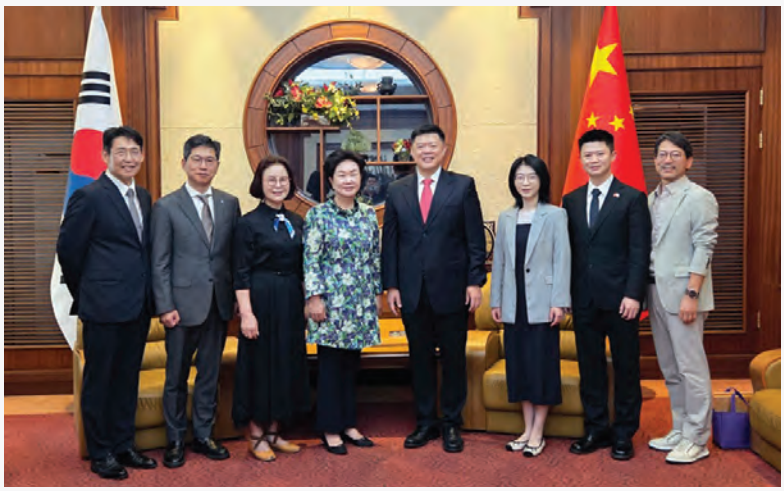
2026. 10. 8.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한올집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김윤규)과 부산예총(회장 오수연)은 지난 10월 8일 부산예술회관에서 부산 예술문화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문화회관 김윤규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영희 공연예술본부장, 남양욱 고객지원팀장, 신정현 행정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부산예총에서는 오수연 회장과 김인숙 수석부회장, 권성은 부회장을 비롯해 산하 단체 회장단이 참석해 지역 예술계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9월 임명된 김윤규 신임 대표이사는 부산문화회관의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부산 예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부산예총은 문화기관과 예술인 단체 간 연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연장 시설 개선과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연장·전시장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부산 예술문화 활성화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예총,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방문

2026. 10. 12. 오전 10시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산예총은 중국 상하이시와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제64회 부산예술제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주부산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는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과 김인숙 수석부회장, 김두진 부회장(부산건축가회 회장), 권성은 부회장(부산음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우리비于璨斐 부총영사와 만나 양측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예총은 부산예술제 개막을 위한 상하이시와의 국제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부산 지역 유학생과 재한 중국동포들의 공연 관람에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10월 15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린 국제교류공연에는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진일표 총영사를 비롯해 250여 명의 중국 관객이 참석해 공연을 함께 즐겼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사업 안내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송성준)은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굿모닝예술인 굿모닝예술로'는 예술인과 기업·기관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해 예술인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술인 컨설팅 매칭사업인 '아이컨택'은 창작활동 과정에서 겪는 의문점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예술인을 1:1로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와 예술인 권리보장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B-아티스테이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이자 지원 사업은 현재 예산 소진으로 종료되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한성1918 B-Culture PLAZA(부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의 AI 사용법
프롬프트로 이모티콘 스타일 이미지 만들기

이번에 사용할 AI tool은 Chat GPT(챗지피티) 입니다.
이번 달에는 프롬프트를 활용해 원하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봅시다.
갈매랑 캐릭터를 소재로 이모티콘을 제작하겠습니다.

[작업 준비]

1 이모티콘으로 만들고 싶은 동물, 사람을 선택하거나 캐릭터를 직접 제작합니다.
(▸캐릭터 제작법 『예술부산』 6월호 참고)

2 검색창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해 이모티콘으로 만들고 싶은 사진을 첨부합니다.
(▸레퍼런스 사진은 갈매랑 축제 마스코트입니다.)

[프롬프터]

첨부한 마스코드 사진을 기반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타일 이미지를 만들어줘.
얼굴 특징, 털 색상, 눈·코·입 위치 최대한 유지하고 표정만 다양하고 생동감 있게 변화해
총 12~16개 표정: 웃음, 울음, 졸림, 놀람, 멍함, 먹는 모습, 찡그림, 사랑스러운 표정 등
각 표정마다 얼굴 밑에 한국어 텍스트 추가
(예: 안녕!, 뭐해?, 부산예술제 가자!, 졸려요~, 감동적이야ㅠㅠ, 재밌다!, 신기해~)
스티커처럼 굵은 흰 테두리 /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 미니 이모지(하트, 별, 반짝이, 물방울) 포함
전체 한 장에 4x4 그리드 배치

[최종 정리]

해당 사진을 행사 굿즈로 스티커 도안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최근에는 Chat GPT(챗지피티) AI를 활용해 프롬프트 입력하면 단어나 문구를 다양한 스타일로 변환할 수 있다.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상황에 맞게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콘텐츠 제작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소개하는 프롬프트는 원하는 형태의 프롬프트 입력하면 다양한 표현을 제안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일부 조건만 수정해도 스타일이 다른 결과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완성본]

제작한 프롬프트는

『예술부산』 인스타그램 @artbusan_monthly

또는 아래의 Q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간『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월간『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700,000 (컷)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700,000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500,000
· ~~표3 (뒷표지 안쪽)~~ 마감!	500,000
· ~~표4 (뒷표지)~~ 마감!	1,000,000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게재 시, 또는 예총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시네바움 11월 강좌안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네바움

11월 아카데미 시네바움에서는 문학과 미술, 영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강연이 이어진다. 9일에는 박홍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으로 표준어 바깥의 언어와 의미를 살펴보고, 16일에는 김승호 동아대학교 현대미술학과 교수가 안젤름 키퍼의 작품을 통해 폐허와 역사의 관계를 조명한다. 23일에는 영화평론가 이용철이 감독 피터 왓킨스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25일 오후 7시 모두를 위한 미술사에서는 김석모 포항시립미술관장이 추상미술의 모든 것을 강연한다. 30일에는 전진성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베를린 다크투어를 통해 기억과 역사의 현장을 살펴본다.

문의 010-2774-3455



보이지 않는 도시

10. 6.(화) ~ 11. 7.(토)
아트소향

이탈로 칼비노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영감을 얻어 도시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세 작가의 시선을 담아낸 전시다. 칼비노는 도시가 기억과 욕망, 관계와 경험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듯 이번 전시는 눈앞에 보이는 풍경 너머에 존재하는 도시의 모습을 탐색한다. 도시는 건물과 도로로 이루어진 물리적 공간을 넘어 그곳을 살아온 사람들의 추억과 관계, 경험이 축적된 장소이기도 하다. 세 작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현실의 풍경을 새로운 이미지로 변주한다. 작품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의미를 되짚고 기억과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의 모습을 마주하는 전시다.

문의 인스타그램 @artsohyang



연극 〈타인의 삶〉

11. 6.(금) ~ 7.(토)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영화팬들에게 인생영화로 손꼽혀 온 작품이 연극으로 새롭게 펼쳐진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5년 전인 1984년 동독을 배경으로, 국가보위부 비밀경찰 비즐러와 그의 감시 대상인 극작가 드라이만, 배우 크리스타의 이야기를 그린다. 투철한 신념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비즐러는 두 사람의 삶을 지켜보며 예상치 못한 감정과 변화에 마주하게 된다. 손상규의 각색과 연출을 통해 영화의 정서를 이어가면서도 인물들의 내면과 선택을 밀도 있게 풀어낸다. 타인의 삶을 지켜보던 한 사람의 변화와 선택을 통해 선한 의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되묻는 작품이다.

문의 051)607-6000



오페라 톡톡 Talk Talk 〈카르멘〉

11. 25.(수) 오전 11시
부산콘서트홀 챔버홀

비제의 대표 오페라 〈카르멘〉을 통해 정열과 자유, 사랑과 운명이 교차하는 강렬한 이야기를 만난다. 자유로운 영혼의 카르멘과 그녀에게 빠져든 돈 호세의 엇갈린 사랑을 중심으로, 욕망과 집착이 비극으로 치닫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프랑스 오페라의 형식 위에 이국적인 색채와 강렬한 리듬을 더한 음악은 작품의 극적인 분위기를 한층 깊게 만든다. 특히 '하바네라'를 비롯해 익숙하고 매혹적인 선율이 곳곳에 등장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도 쉽게 작품에 빠져들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음악을 함께 살펴보며 〈카르멘〉의 매력을 보다 친근하게 만날 수 있다.

문의 051)640-8888



연극 〈어무이, 국수 좀 내주이소〉

11. 27.(금) ~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2시, 5시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980년대 초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와 관계의 의미를 그려낸 작품이다. 자수성가한 창주와 세 딸, 열아홉의 나이에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한 씨가 한집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다. 어느 날 한 씨의 아들이 집을 찾아와 "어무이, 국수 좀 내주이소"라고 말하면서 봉인되어 있던 과거와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한 그릇의 국수를 내어주는 일에서 시작해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오랜 시간 묻어둔 상처와 서로 다른 삶의 선택이 충돌하는 가운데 가족과 사랑, 용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무대다.

문의 010-9595-3648



독일 현대미술 특별기획전 안드레아스 폴Andreas Pohl 초대전

11. 5.(목) ~ 25.(수)
갤러리 인터페이스

현대미술 작가 안드레아스 폴은 현실을 정교하게 묘사하면서 익숙한 풍경을 낯설고 신비로운 세계로 바꾸어 놓는다. 인물과 동물, 정물, 풍경과 건축 등 일상적인 대상들은 작가의 경험과 감정, 상상력을 거치며 중력과 논리를 벗어난 장면으로 재구성된다. 공중에 떠 있는 사물과 비현실적인 그림자, 낯선 공간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리며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작가는 형상을 지우는 대신 현실의 모습에 내면과 통찰을 더하는 작업으로 고전적 아름다움과 질서에 대한 회화의 가치를 탐구한다.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작가의 독창적인 시선과 현대적 상상력이 어우러진 작품을 통해 회화가 펼쳐 보이는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51)808-7105



최고의 선물 안유환 / 수필과비평사

안유환 작가가 오랜 시간 써온 수필 40편을 엮은 세 번째 수필집이다. 첫 수필집 『매미 소리를 들으며』 이후 15년, 두 번째 수필집 『마음을 건드리는 노래』 이후 12년 만에 선보이는 책이다. 작가는 지나온 삶의 순간과 일상의 기억을 담담하게 돌아보며, 수필을 그때그때 찍어둔 '마음의 사진'에 비유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펼쳐낸다. 표제작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 공동주제와 단수필 등 여러 형식의 글을 함께 담아 한층 다채로운 결을 보여준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아온 기억을 한 편의 글로 길어 올린 수필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동시에 지금의 삶을 바라보게 한다. 먼 곳에서 찾아온 고향 친구처럼 다가오는 글들을 통해 삶의 작은 순간이 지닌 의미와 글쓰기의 즐거움을 전하는 수필집이다.



시우일기時雨日記 문경희 / 세종출판사

일 년 반 동안 잡지에 연재한 글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매달 한두 편씩 써 내려간 기록을 한데 모은 산문집이다. 저자는 외진 마을에서 마주한 사람과 자연, 풀과 꽃, 나무와 새와 벌레 등 일상의 존재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생각을 풀어낸다.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풍경은 단순한 배경에 머물지 않고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다양한 작품 중 「겨울, 그 소요한 계절」에서는 겨울 자연을 바라보는 동안 저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때로는 지치고 낙망하면서도 다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는다. 그렇게 삼백예순다섯 날을 함께한 존재들은 저자에게 삶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페이스메이커가 된다. 소란한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연과 일상의 작은 움직임을 들여다보며 다시 자신의 하루를 마주하게 하는 기록이다.



붓끝에 흐르는 강물 이태호 / 다솜출판사

사진작가로 활동해 온 이태호 시인이 렌즈 너머의 세상을 언어로 담아낸 첫 시집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아오던 시인은 시간이 흐르며 눈에 보이는 풍경 너머에 존재하는 삶의 의미와 내면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며 시를 쓰기 시작했다. 사진으로 포착한 순간의 감각은 시를 통해 오래 남는 기억과 정서로 확장된다. 시집은 '붓끝에 흐르는 강물', '시인의 가슴에는', '노을에 새겨진 그리움', '앵글 속의 추억' 등 4부로 구성되어 자연과 사랑, 그리움과 기억을 다채롭게 풀어낸다. 특히 사진과 문인화적 시선이 어우러지며 외부의 풍경을 내면의 감정으로 옮겨오는 시인의 독특한 표현이 돋보인다. 렌즈로 포착한 찰나를 시어로 기록하며 순간을 영원한 기억으로 남기고자 한 시인의 문학적 여정이 담긴다.

NOVEMBER 11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3층·4층전시장) 동사회 제46회 동사회 사진전 010-3593-3498	2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신나는김윤정라인댄스(4층연습실) 15시~15시50분 (3층전시장) 이명숙 사진전 010-6597-5635 (4층전시장) 김태희 손끝의 미학 2 The Aesthetics of ingertips2 010-4542-5322	3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 30분 댄스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전시장) 이명숙 사진전 010-6597-5635 (4층전시장) 김태희-손끝의 미학 2 The Aesthetics of Fingertips2 010-4542-5322	4 (오전오후야간) 문화가있는날 〈사계〉 051)631-1577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전시장) 이명숙 사진전 (010-6597-5635) (4층전시장) 김태희-손끝의 미학 2 The Aesthetics of Fingertips2 (010-4542-5322)	5 오전오후야간) 제64회 부산예술제 시상식 051)631-1377 사진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3층전시장) 이명숙 사진전 010-6597-5635 (4층전시장) 김태희-손끝의 미학 2 The Aesthetics of Fingertips2 010-4542-5322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6 줌바댄스 13시20분~14시50분 신나는김윤정라인댄스(4층연습실) 15시~15시50분 (3층전시장) 이명숙 사진전 010-6597-5635 (4층전시장) 김태희-손끝의 미학 2 The Aesthetics of Fingertips2 010-4542-5322	7 (오후야간) 부산영화인협회 페이드인 영화제 010-5441-1487 (3층전시장) 이명숙 사진전 010-6597-5635 (4층전시장) 김태희-손끝의 미학 2 The Aesthetics of Fingertips2 010-4542-5322
8 (오후야간) 부산영화인협회 페이드인 영화제 010-5441-1487 (3층전시장) 이명숙 사진전 010-6597-5635 (4층전시장) 김태희-손끝의 미학 2 The Aesthetics of Fingertips2 010-4542-5322	9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신나는김윤정라인댄스(4층연습실) 15시~15시50분 (3층·4층전시장) 시진단체 중강 부산 지하철 3·4호선 010-7154-4120	10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 30분 댄스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4층전시장) 시진단체 중강 부산 지하철 3·4호선 010-7154-4120	11 (오전오후야간) 문화가있는날 〈부산, 바람의 시작〉 051)631-1577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4층전시장) 시진단체 중강 부산 지하철 3·4호선 010-7154-4120	12 사진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3층·4층전시장) 시진단체 중강 부산 지하철 3·4호선 010-7154-4120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3 (오후야간) 경성대학교 UCDC 하반기 정기공연 010-9098-1988 줌바댄스 13시20분~14시50분 신나는김윤정라인댄스(4층연습실) 15시~15시50분 (3층·4층전시장) 시진단체 중강 부산 지하철 3·4호선 010-7154-4120	14 (3층·4층전시장) 시진단체 중강 부산 지하철 3·4호선 010-7154-4120
15 (오후야간) 제13회 솔로앤 앙상블 정기연주회 010-5506-8688 (3층·4층전시장) 시진단체 중강 부산 지하철 3·4호선 010-7154-4120 (오후야간) 솔로앤앙상블 010-5506-8688	16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신나는김윤정라인댄스(4층연습실) 15시~15시50분 (3층·4층전시장) 제45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전시 051)631-4111 (오후) 부산미술협회 제52회 부산미술대전 2차 운영위원회 회의 051)632-2400	17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 30분 댄스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4층전시장) 제45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전시 051)631-4111	18 (오전오후야간) 문화가있는날 〈렉처퍼포먼스 발레리노가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발레〉 051)631-1577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4층전시장) 제45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전시 051)631-4111	19 (오전오후) 부산문인협회 글로벌 문학섹션 051)632-5888 사진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3층·4층전시장) 제45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전시 051)631-4111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0 (오전오후) 부산문인협회 글로벌 문학섹션 051)632-5888 줌바댄스 13시20분~14시50분 신나는김윤정라인댄스(4층연습실) 15시~15시50분 (3층·4층전시장) 제45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전시 051)631-4111	21 (오전오후야간) 음악교육신문 부산지사 Laureates' Brilliant Concert 010-5799-2051 (3층·4층전시장) 제45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전시 051)631-4111
22 (3층·4층전시장) 제45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전시 051)631-4111 29 (오전오후야간) 부산무용협회 새물결춤작가전 051)632-5116 (3층·4층전시장) 오수연개인전	23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신나는김윤정라인댄스(4층연습실) 15시~15시50분 (3층·4층전시장) 오수연개인전 30 (3층·4층전시장) 오수연개인전	24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 30분 댄스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4층전시장) 오수연개인전	25 (오전오후야간) 문화가있는날 〈더부산필하모니아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클래식〉 051)631-1577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4층전시장) 오수연개인전	26 사진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3층·4층전시장) 오수연개인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7 (오전오후야간) 부산무용협회 새물결춤작가전 051)632-5116 줌바댄스 13시20분~14시50분 신나는김윤정라인댄스(4층연습실) 15시~15시50분 (3층·4층전시장) 오수연개인전	28 (오전오후야간) 부산무용협회 새물결춤작가전 051)632-5116 (3층·4층전시장) 오수연개인전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김 성 주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1997@naver.com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함께라서
두근두근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부산불꽃축제

부산을 문화로 꽉— 채우는 은행

공연장부터 거리까지,
특별한 날부터 평범한 일상까지.
BNK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꾸준히 후원하며
부산 곳곳을 문화의 즐거움으로 채워갑니다.

BNK 부산은행은 지역 문화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BNK부산은행 갤러리 | 아이러브 페스티벌 | Play on Busan 문화공연 | 부산은행 창립기념 음악회 | 어린이 미술대회 | 범시민 도서교환전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11

ISSN 1976-974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